

안산톡톡을 새롭게 전하기 위해 '보이스아이'가 도입되었습니다. 우측 상단 코드를 '보이스아이' 앱으로 스캔하면 시각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정도 소식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낭만적인 드라이브 떠나요~  
안산 대표 관광성 대부도  
첫 해안도로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통

관련기사 5면

## 02 특집

###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온라인접수와 방문접수, 신청일과 사용기한까지 꼼꼼히 살펴보자.

## 12-13 기획

### 2020 안산방문의해 특집

공룡의 신비와 아름다운 호수를 간직한 대부광산퇴적암층, 서해의 기운을 듬뿍 받아 명품 소금을 생산하는 동주염전을 소개한다.

## 08-09 안산, 안산인

### 역사인물 탐방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충신과 열녀의 절개, 따뜻한 효자이야기를 간직한 안산의 역사와 인물에 대해 알아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자.

## 16 도시의 삶

### 안산의 걷기 좋은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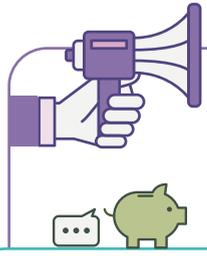
아직 끝나지 않은 사회적 거리두기. 5월 황금연휴에 멀리가기 힘들다면 안산의 성곽길 별망성지와 바닷길이 열리는 누에섬으로 힐링하러 GO! GO!

함께 극복 커지는 행복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안산시가 시민 모두에게

# 10만원을 드립니다

신청일자 4월20일부터 문의전화 ☎1666 1234 본문 2면 ▶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경기도

- 지급대상**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원 지급  
2020.3.23. 0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
- 사용기한** 3개월(사용개시 문자 수신 이후)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
- 사 용 처** 연매출 10억원 이하 주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제외

### 온라인접수

- ◇ 신청기간 \_ 4월 9일 ~ 4월 30일
- ◇ 지급방식 \_ 경기지역화폐 및 신용카드
- ◇ 신청방법 \_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 대 상 \_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소지자  
(농협·신한·국민·삼성·우리·하나·롯데·현대·비씨카드, 기업·SC제일·수협·한국씨티은행)
- ◇ 대리신청 \_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 가능  
성인은 대리신청 불가
- ◇ 신청절차 \_ 홈페이지접속 및 카드선택 → 신청금액 확인 및 저장 → 문자로 사용개시 알림 → 카드사용

### 방문접수(신분증 필히 지참)

- ◇ 신청기간 \_ 4월20일 ~ 7월31일  
※ 5월 18일 이후부터는 주말·야간 미접수, 5부제 미시행
- ◇ 지급방식 \_ 선불카드(승인 문자 수신 후 사용 가능)
- ◇ 신청방법 \_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평일 오전9시~오후8시, 주말 오전9시~오후6시)  
또는 농협은행(영업시간 내) 방문신청

대상가구	신청주간	신청기간(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주말·휴일
		월	화	수	목	금	
4인가구 이상	4.20 ~ 4.26	1·6	2·7	3·8	4·9	5·0	누구나 신청가능
3인가구	4.27 ~ 5.3						
2인가구	5.4 ~ 5.10						
1인가구 및 미신청자	5.11 ~ 5.17						
전체	5.18 ~ 7.31						미접수

※ 예) 4인가구 68년생인 경우 - 4월 22일 수요일  
3인가구 61년생의 경우 - 4월 27일 월요일

- ◇ 대리신청 \_ 가족구성원 대리신청 및 수령 가능
- ◇ 참고사항 \_ 찾아가는 현장발급서비스는 5월 중순부터 시행예정  
※ 대상 : 교통약자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 ◇ 문 의 \_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

## 안산시

- 지급대상** 지급기준 2020.4.2. 0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산시에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국내거소 신고가 된 자
- 지급금액** 시민 10만원, 외국인 7만원
- 사용기한** 3개월(사용개시 문자 수신 이후)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



안산화페  
다운카드

- 사 용 처** 다운 가맹점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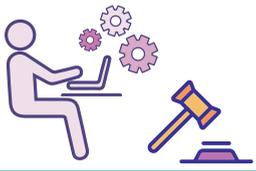
### 온라인접수 (4월 22일부터 5부제 미적용)

- ◇ 신청기간 \_ 4월 20일 ~ 7월 31일
- ◇ 신청방법 \_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 대 상 \_ 본인명의 휴대폰 소지자
- ◇ 대리신청 \_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 가능  
성인은 대리신청 불가
- ◇ 신청절차 \_ 홈페이지접속 및 본인인증 → 신청금액 확인 및 저장 → 문자로 사용개시 알림 → 카드사용

### 방문접수(신분증 필히 지참)

- ◇ 신청기간 \_ 4월 20일 ~ 7월 31일  
※ 5월 18일 이후부터는 주말·야간 미접수, 5부제 미시행
- ◇ 신청방법 \_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신청일 동일, 5부제 적용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평일 오전9시~오후8시, 주말 오전9시~오후6시)
- ◇ 대리신청 \_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구 세대원 전체 신청 가능  
※ 신청하고자 하는 가족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관계없이 방문하는  
사람 출생년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날 신청
- ◇ 대리신청의 범위
  1. 가족관계이나 세대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 가능
  2.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위임장 필요없음)
  3. 군 입대자(주민등록상 가족이 대리 가능)
  4. 어르신, 거동 불편자, 시설입소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
  5. 외국인 주민은 본인신청이 원칙이며, 배우자, 직계존비속(미성년자녀 포함) 같은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필수
- ◇ 문 의 \_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daon.ansan.go.kr)  
또는 안산시 기획예산과(031-481-3464)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은  
5월 4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반월시화공단의 한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A씨,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회사가 휴업하는 바람에 내년도 연차를 당겨서 쉬고 있다. A씨는 “회사에서는 일감이 줄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럴 경우 연차를 공제할 것이 아니라 회사가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지 않나요?”라며 관련기관을 찾았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휴업, 휴직, 휴가, 재택근무와 관련한 문의가 증가하자 사업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정리·안내하고 있다. 이 중 현장에서 주로 궁금해 하는 것들 몇 가지를 요약했다.

### Q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경영악화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유급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Q 사업장에서 확진환자 발생,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사업장 전체(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동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Q 코로나19 확산예방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확진환자 등이 없거나 방역조치가 완료 된 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 Q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노동자가 이를 동의하는 형태로, 원칙적으로 노동자에게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노동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음

### Q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삭감, 무급 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지?

노동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을 강요할 수 없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 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Q 사업장이 폐업되면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일신상의 이유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장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기타 지원제도로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융자,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이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유급으로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문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안산고용복지+센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 피해사례를 모집·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대표번호 1350), 안산고용복지+센터(031-412-6600)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031-487-4870)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 우리의 건강을 위해 일상 속 소독을 지켜주세요



#### 소독할 땐 이렇게 해주세요!

1.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2. 개인 보호구를 잘 착용해주세요
3. 소독제를 희석해서 준비해주세요
4. 희석한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장소나 물건을 닦아주세요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NO!  
청소 전/중/후 충분한 환기는 필수 OK!

####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해주세요!

- ☑ 손잡이, 난간, 문고리, 엘리베이터 버튼, 콘센트, 스위치 등 다양한 장치 등
- ☑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물건의 표면 (예 :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 ☑ 화장실 :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욕조, 화장실 표면 등



#### 청소 및 소독이 끝났다면?

- ☑ 소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넣고 밀봉해서 버려주세요!
- ☑ 소독 후 사용 전까지 충분히 환기해 주세요!
- ☑ 소독 후 손씻기, 샤워 등 개인위생을 꼭 실천해주세요!



## 안산시, 품격과 배려 갖춘 자가격리자 관리...온라인에서 큰 화제

### 최근 입국한 30대 안산 거주 일본인 여성 “보건소 직원 배려에 감사”



일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생활을 했던 30대 일본인 여성이 안산시 보건소 직원의 배려와 보살핌에 감사하다는 글을 SNS에 공개하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특히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면서 코로나19 사태를 대하는 한국의 국격을 널리 알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4월20일 시에 따르면 단원구에 거주하는 일본 국적의 여성 A(38)씨는 자가격리 생활상을 개인 SNS에 전하며, 시 보건소 직원에 대해 “얼굴을 보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어 죄송하지만, 정말 많은 배려를 느꼈다”고 적었다.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해 4월2일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 주소지 관할 보건소인 단원보건소로부터 4월16일 자정까지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4월5일부터 개인 SNS에 자가격리 일상을 전하며 시 보건소로부터 지원받은 구호물품을 소개하는 등 자가격리 생활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A씨는 “보건소로부터 전화를 받고 현관을 확인했더니 큰 박스에 마스크와 소독제, 체온계 등이 있었다”며 “아직 세금을 내지 않아 제외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놀랐다”고 소

감을 밝혔다. 이어 4월8일에도 “구호물자를 제공했다는 시 직원의 전화를 받고 확인했더니 큰 종이박스에 밥 12개, 쌀 4kg, 라면 16개 등이 도착했다. 감사하다”고 글을 게재했다.

A씨의 글은 SNS상에서 3천300회 이상 퍼져나갔고, 5천400여 명의 한일 누리꾼이 관심을 나타냈다. 게시글에는 일본 누리꾼들이 “한국 대단하다”, “대응에 놀랐다”, “한국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댓글을 게재하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시는 공항검역소를 나온 무증상 입국자에 대한 명단을 파악한 뒤 자가격리앱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과 함께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소독약품 등 다양한 용품을 제공한다. 이어 5만4천원 상당의 쌀과 라면, 김 등 식료품이 담긴 개별구호물품을 전달하며, 최근에는 외국인 주민에게 해당 국가의 식품도 담아준다. 특히 주변 이웃에게 자가격리 중인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비대면으로 조용히 전달하는 등 배려심도 잊지 않는다.

이러한 사연은 지난 4월13일 유튜브에 게재돼 조회수 119만을 넘긴 ‘한국과는 다른 일본의 근본적 문제’라는 제목의 영상에 담겨 큰 화제가 돼 국내 언론은 물론 한일 누리꾼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A씨는 보건소 측에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다”며 “매일매일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A씨는 일상으로 돌아갔으며, 국내 정착을 위해 안산에 거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내국인 가리지 않고 모든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관리에 나서고 있다”며 “직원들의 노력이 알려져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의 : 단원보건소(031-481-6360)

## 안산시, 스마트폰 없는 해외입국자에게 스마트폰 지원

### 모니터링 전담공무원에게도 관리용 스마트폰 제공



안산시가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와 이들을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에게 모두 스마트폰을 지원해 보다 철저한 관리에 나선다.

4월9일부터 스마트폰이 없는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게 무료로 스마트폰을 지원하고 있으며, 4월21일을 기준으로 10대가 모두 지원돼 20대를 추가 확보한다. 지원되는 스마트폰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설치돼 매일 앱을 통한 증상 및 위치를 파악하고 있으며 영상통화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3월18일부터 전국 최초로 모니터링을 위한 영상통화 시스템을 도입해 자가격리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수시로 진행되는 영상모니터링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는 물론, 외출 금지 등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영상통화 외에도 전화 모니터링, 긴급 방문 모니터링 등을 통한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임대한 스마트폰은 자가격리 해제 다음날 회수해 고장 유무 등을 확인한 뒤 소독 절차를 거쳐 신규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영상통화’로 자가격리자를 점검하는 전담공무원에게도 관리용 스마트폰을 임차 지원할 예정이다. 4월20일 오후 5시 기준 안산시 자가격리자는 635명이며 이 가운데 해외입국자는 96.7%에 달하는 606명이다.

문의 :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031-481-3371)

## 확진자 평균 18일 입원 후 퇴원...보름 이상 신규 환자 없어

### “완치 후 재양성 사례 철저히 대비”

안산시는 4월22일 기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여일 가까이 추가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입원환자 16명 중 14명이 퇴원해 87.5%의 완치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10일 1·9·16번째 세 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퇴원한데 이어 4월18일과 19일에는 부녀관계인 10·13번째 환자가 입원 24일 만에 잇따라 퇴원하는 등 모두 14명이 완치판정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관내 코로나19 환자들은 평균 18일 동안 입원해 격리치료를 받다가 완치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사태 초기 우려됐던 외국인 주민 감염 사태는 없었으며, 4월1일 해외에서 귀국해 관내 마지막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째 환자도 4월10일 퇴원하면서 해외입국자에 의한 2차 감염사례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전국 평균 코로나19 환자 완치율 75.4%보다 높은 87.5%를 달성하게 된 배경에는 초기부터 실시된 민·관의 협력 속 강력한 방역활동,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과 의료기관 등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환자를 돌본 결과라고 설명했다.

확진자는 증상이 사라진 뒤 24시간 간격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두 차례 실시해 모두 음성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일 이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높은 완치율을 보인다는 소식은 시민 모두가 기다리던 가장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며 “다만, 완치 후 재양성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할 계획이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실천과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더욱 철저히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031-481-3371)

## 안산시 대부도, 수도권 드라이브 관광 코스로 각광... '드라이브 스루로 즐겨요'

### 올 4월부터 서남부 연결도로 개통...해솔길 봄꽃 조성사업도 추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요즘, 안산시 대부도가 드라이브 코스로 이용되고 있어 시민들의 나들이 욕구를 채워주고 있다.

대부도 서부해안을 따라 대부북동 둔지섬과 백국천을 잇는 길이 5.2km, 폭 15m의 왕복 2차로는 올 4월1일 개통돼 많은 운전자들이 지나고 있다.

2014년 12월 대부도 서부해안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429억 원이 투입돼 착공된 도로는 대부도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며 관광객의 펜션 등 휴양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도로 옆에는 자전거와 도보 통행도 가능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는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안을 따라 푸른 바다와 울창한 소나무숲 사이에 조성된 도로는 이용객들에게 빼어난 자연경관을 제공하며, 국가연안습지보호구역이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상동갯벌 1.39㎢도 바로 옆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로는 대부도의 드라이브 관광을 한층 높이고 있다. 도심에서 1시간 내로 이동 가능한 대부도는 계절에 관계없이 탁 트인 서해바다와 아름다운 낙조 등 천혜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매력으로 수도권 '핫플레이스'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솔길 봄꽃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관광이 가능한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 짹짹한 바닷내음이 어우러진 7가지 매력을 품은 대부해솔길에 봄꽃 5천 본을 식재해 지친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릴 힐링공간으로 거듭나게 할 예정이다.

소나무숲길, 염전길, 석양길, 바닷길 등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 총 길이 74km의 대부해솔길 7개 코스는 자연을 벗 삼아 다양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이다. 최근에는 16.8km 길이의 7-1코스가 추가로 조성돼 매력을 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부도가 드라이브 스루 관광의 대표관광지로 거듭나도록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에 힘쓰면서도 관광산업의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도시공사(031-481-4900)

## 안산시, 경로식당 운영중단에 대체급식 제공

### 무료급식 운영중단으로 식사 거르시는 어르신 대상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이 중단된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던 어르신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대체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던 관내 13개 경로식당(상록구 6개, 단원구 7개)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 중이다.

시는 무료급식소 중단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로식당을 이용하던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안부 등을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실시, 경로식당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대체식 및 도시락, 밑반찬 등을 혼합해 제공하고 있다.

대체급식 서비스는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어르신 1천550여명을 대상으로 5끼 분량의 대체 급식을 주 1회 제공해 코로나19로 외부활동 제한 등으로 자칫 고립돼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340여명의 어르신에게는 식사배달사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로 현관 앞 전달, 마스크 착용 등 대면접촉을 최소화해 도시락 등을 중단 없이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놓치는 복지서비스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031-481-3370)

## 안산시 평생학습관, '차이 없는 클래스' 수강생 모집

### 결혼이주민 대상, 실생활 위주 한국어 교육 지원

안산시 평생학습관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 및 문화예술체험, 내국인과의 연계활동 프로그램인 '차이 없는 클래스'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차이 없는 클래스 프로그램은 한국 초기 적응과정과 한국어교육지원 등 다문화가구에 대한 교육정책이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인 원곡동다문화마을특구 등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소외된 상록구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구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드라마, 쇼핑 등 실생활에서 주로 쓰이는 한국어로 구성해 다양한 말하기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또 문화예절을 배울 수 있는 ▲다도체험 ▲전통의례체험 ▲한복체험 ▲식물원에서 배우는 환경체험 ▲한국노래를 부르는 상호노래자랑 등 전통문화와 환경체험 등의 활동이 준비됐다. 이밖에도 결혼이주민과 평생학습관 학습자가 함께 협력해 만들어 가는 다문화 전래동화 책 만들기 프로그램 '썰담'도 진행된다. '스토리와 스토리를 담은 책', '전설을 담은 책'의 뜻을 담고 있는 썰담은 결혼이주민이 자국의 전래동화를 들려주면 평생학습관의 글짓기 커뮤니티가 글을 쓰고, 그림 그리기 동아리가 그림을 그려 한 권의 책으로 완성하는 활동이다.

차이 없는 클래스는 평생학습관 강의실에서 5월12일부터 10월27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오전 10~12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강 신청은 4월20일부터 5월8일까지 전화(031-409-1877)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고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주신고증을 제출하면 된다.

최라영 평생학습관장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진정한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learning.iansan.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안산시 평생학습관(070-4492-1574)



##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초·중·고 온라인개학, 원격수업 통한 실시간 쌍방향 교육 진행



안산시의 각 초·중·고등학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규수업에 준하는 원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고 카오톡을 이용한 조회·종례, EBS온라인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으로 온라인 개학을 했다. 학생들은 먼저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지사항 및 가정통신문을 확인한 후 학급 EBS온라인클래스로 입장했다. 원격수업은 교과의 특성과 학습내용에 따라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의 형태로 진행되며 유무선 확인 등으로 학습관리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출결확인도 교과 교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출석부 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기록한다.

초등학교 역시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1,2학년은 스마트 기기로 장시간 수업을 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EBS방송과 가정학습자료를 통해 수업하며 3학년부터는 ‘e학습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수업한다. 온라인 개학에 따른 유의사항으로 각 가정에서는 담임교사와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학급방에 가입하여 공지사항과 학급안내문 등을 자주 확인하고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EBS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환경점검을 하고 집에 TV가 없을 때는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 스마트폰 인터넷 채

널을 확인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학습시스템, EBS와 e학습터는 5월31일까지 스마트폰 데이터 차감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허정민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는 “1,2학년 경우 1~2교시는 EBS강의로 국어·수학을 수업하고 3~4교시는 교사 역량에 따라 과제출제 등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3,4학년 경우는 e학습터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모둠활동으로 진행해야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과목 등을 못하는 것이 온라인개학의 애로사항 중 하나다. 학교의 인프라, 교사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교육격차가 조금 날 수 있으므로 온라인수업이 정규수업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수업을 통해 교육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학부모와 담임교사는 온라인학급방의 댓글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경 안산교육지원청 중등교육 장학사는 “현재로선 언제 등교개학이 이루어질 것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정부나 안산시에서 개학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각 학교의 온라인 접속애로사항은 케리스(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나 에듀넷을 통해 바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어려운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약속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고 정말 대견스럽다. 이렇게 해서 등교개학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산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 정보와 강의, 도서 추천 등이 담긴 ‘우리집 온라인클래스’ 학습지원을 안내했으며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활용하기 쉽도록 안내사항을 중국어와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보급했다. 또한 등교개학에 대비해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110개교 가운데 80개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나머지 30개교에 대해서는 시 예산 2억4천만 원을 투입해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지원한다. 열화상카메라는 등교개학 이전에 설치될 예정이며 관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의 발열체크를 돕는다.

문의 : 안산교육지원청(031-412-4621) / 권소희 명예기자\_estateksh@naver.com

## 2020 대부 방아머리습지 생태체험...다채로운 프로그램 편성 바다향기 맡으며 간척지의 동식물과 함께하는 생생한 유아체험학습

안산시에서는 작년에 이어 2020년에도 봄부터 가을까지 시화간척지 내 다양한 연안 생태자원과 기존 테마파크 시설물을 활용한 ‘대부 방아머리 습지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관내 5~7세 어린이 단체를 대상으로 대부도, 시화호 등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대부 방아머리 습지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수업에 참여했던 어린이들과 인솔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3년째 꾸준히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수업은 자연관찰, 자연놀이 등의 생태체험과 농업체험 등의 내용이 주가 되며 시화호 간척지라는 특수한 공간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밌게 이해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에는 유아들의 체력을 고려한 효율적인 이동 동선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자연환경해설사의 지도하에 계절별로 다른 동식물 생태관찰 및 공작체험과 농업체험이 가능하다.

‘자연생태 및 공작체험’은 4가지의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여 20명 이내 어린이 단체가 1시간동안 체험할 수 있다. 그 중 간척지의 생태와 동식물을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간척지의 이해’는 모든 유아들이 한번쯤은 들어볼만한 기본 프로그램이다. 산책을 따라 걸으며 고라니의 생태를 파악하고 발자국 도장찍기를 하는 ‘간척지 동물관찰’ 프로그램은 사계절 내내 아이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상반기에는 봄을 맞아 새롭게 올라온 염생식물들을 알아보고 나만의 손수건을 만들 수 있는 ‘염생식물 관찰’ 프로그램을 추천할 만하다. 가을에는 잠자리의 종류와 한살이를 알아보고 곤충눈 안경 만들기를 할 수 있는 ‘간척지 곤충관찰’ 프로그램이 적격이다.

‘농업체험’은 아이들이 직접 감자와 고구마를 심고 수확하며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식



물 재배 체험학습이며 20팀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대부 방아머리 습지 생태체험’은 평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11월까지 수업이 진행되며 장소가 야외인 대부방아머리습지(구 바다향기테마파크)인 것을 고려해 혹서기인 8월은 피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집안과 실내에만 머물던 아이들이 넓은 갯벌과 탁 트인 바다를 보며 간척지의 동식물과 하나가 되는 생생한 체험학습을 통해 변화될 안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체 험 장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41-10번지

참여신청 : 전화문의(032-888-0304)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 시작일이 연기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문의 : 안산시 대부개발과(031-481-6990) / 김선영 명예기자\_rimmom@korea.com

## 안산시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안심예약대출 서비스 제공...활용도 무궁무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즐겁게 책 읽어요”

안산시 도서관은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 이 전부터 제공해오던 전자책서비스를 확대했다. 컴퓨터로는 안산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모바일로는 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과 직접 연동된 '리브로피아'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하는 전자책은 1만1천여 권에 달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편리한 전자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안산시 도서관 회원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컴퓨터에서는 도서관 홈페이지 상단의 '온라인서비스'를 눌러 '전자책'을 선택하거나 가운데의 '전자책서비스'를 선택한 후, 도서관에 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한다. 모바일에서는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나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리브로피아'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실행한 후 안산시 도서관을 추가하여 도서관 회원 인증을 받고 '모바일전자책'을 클릭하여 이용하면 된다.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고 대출하면 열람이 가능하며 대출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반납된다. 전자책과 오디오북은 2주 동안 최대 7권까지 빌릴 수 있으며 사전 반납, 대출연장도 가능하다. 도서관에서 대출받은 책은 '내 서재'에 보관되며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로그인 하더라도 읽고 있던 페이지를 보여주어 편리하다.

전자책만의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바로 '예약우선기간'이다. 이것은 예약한 도서가 자동으로 대출될 때 이미 다른 도서를 대출 권한만큼 대출하여 추가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다른 도서를 반납하고 수동으로 예약했던 도서를 우선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시간을 말한다. 즉 오프라인 도서관에 비유하면 예약한 도서가 반납되었을 경우 예약자가 우선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시간이다. 예약우선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예약취소 처리가 되며 다음 예약자에게 대출 처리된다. 전자책 외에 오디오북과 E-러닝을 이용할 수 있고 키즈북을 통해 한글동화를 볼 수 있으며 영어 학습까지 가능하다.

안산시 도서관은 전자책서비스 외에 안심예약대출 서비스도 확대 운영한다. 각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리브로피아' 앱에서 도서 대출을 신청하고 안내 문자 수신 후에 다음 날까



지 중앙·감골·관산·성포·상록어린이·단원어린이도서관에서 책을 받아갈 수 있는 서비스이다.

도서 신청은 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가능하며 수령은 안내 문자를 받은 후 월~토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야한다. 1인 최대 3권으로 14일간 대출 가능하며 반납은 각 도서관 무인반납기 또는 타 도서관 반납도 가능하다.

문의 : 안산시 중앙도서관(031-481-2702)  
권소희 명예기자\_estateksh@naver.com

## 안산시 '주차 안심 전화번호 서비스' 5월부터 시행 개인정보 보호, 범죄 피해 예방 취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주차 시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호출하기 위해 대부분 자동차에 휴대폰 번호를 남겨둔다. 무심코 남겨 둔 개인정보,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 불안하다는 생각을 충분히 해 볼 수 있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겨두긴 하지만 차에 버젓이 공개된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가 무작위로 수집되어 스팸 문자,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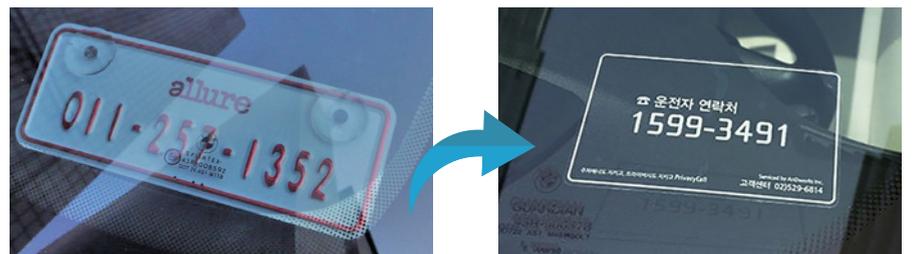
이런 부정적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안산시에서 '주차 안심 전화번호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행정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서비스를 통해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다행히 안산시는 지능형 범죄(보이스피싱 등)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공간인 주택가, 사무실, 주차장 등에서 핸드폰 번호 유출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에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범죄 피해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

또 최근 3년간 승용차 등록현황을 보면 지속적 증가 추세로 주·정차에 따른 민원 발생 및 개인 연락처 노출에 따른 범죄 발생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에 '주차 안심 전화번호 서비스'는 필요한 상황이다.

담당 부서인 교통정책과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1년 단위로 갱신한다고 한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안산 시민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명함 형식으로 제작된 호출용 대표번호(1599-3491)를 통해 차주와 호출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대표번호를 부여받는 안심번호 시스템은 주정차 시 개인 연락처 대신 호출용 대표번호



로 운전자와 호출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호출자가 차량에 남겨진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시스템에 따라 차량 주인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개인 연락처를 노출할 필요가 없고 범죄 악용 등이 방지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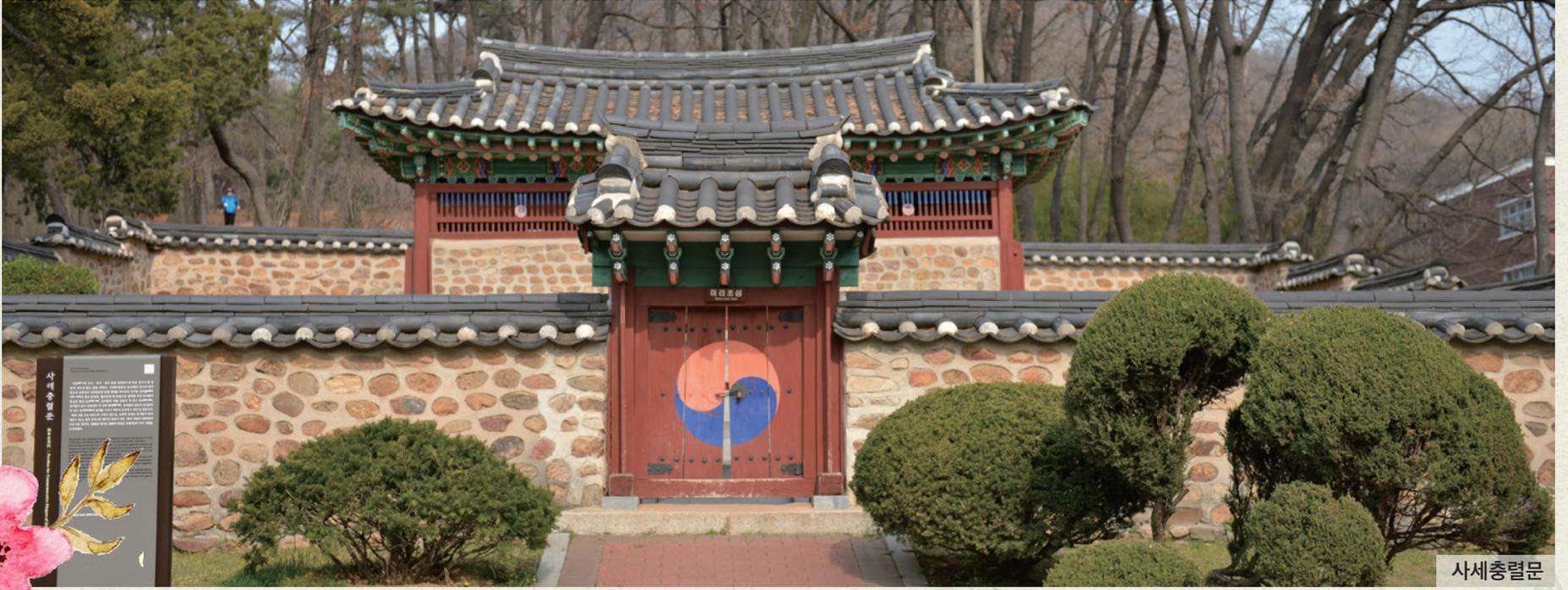
5월1일부터는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일부 제외), 안산시차량검사소 등에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에게 배부한다.

'주차 안심 전화번호 서비스'는 인근 시흥시에서 '프라이버시콜'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2월부터 시흥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2018년 배곧동에서 먼저 시범운영한 후 확대운영 한 것인데 당시 이 서비스를 먼저 이용했던 배곧동 주민 설문 결과 99.2%가 지속적인 서비스를 요구했고, 97.9%가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 되었다고 답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문의 : 안산시 교통정책과 (031-481-2291)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가정의 달을 맞아 떠나는 안산의 역사·인물 탐방

# 사세충렬문과 충신 김여물의 가문



사세충렬문

## 효자·충신·열녀의 정문(旌門) 사세충렬문

단원구 와동 광덕산 자락의 와동초등학교 옆, 숙연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사세충렬문이 있다. 이곳엔 충신 한 분과 네 분의 열녀 정문이 모셔져 있다. 정문(旌門)은 조선시대 국가에서 효자·충신·열녀를 표창하기 위해 마을 입구나 집 문 앞에 세우는 붉은 문을 일컫는다.

사세충렬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각지붕집으로 주위에 1.6m 높이의 담장이 둘러져 있다. 가운데 칸에는 민가 대문 형식의 문을 달고 '사세충렬문(四世忠烈門)'이라고 쓴 현판을 걸었다. 건물 안은 2칸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측 방은 마룻바닥으로 김여물의 충신 정문이 있고 좌측 방 벽 중간 지점에 안쪽으로부터 좌로 돌아가며 사세 열녀의 정문이 세워져 있다. 사세충렬문은 1983년에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호로 지정됐다.

## 충신과 열녀의 슬픈 이야기

충신 김여물(1548~1592). 본관은 순천(順天), 호는 피구자(披裘子)이며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성심을 다해 모셨으며 녹봉을 받으면 모두 어머니에게 바치고 한 푼도 사사로이 쓰지 않았다고 한다. 20세에 소과에 합격하고 10년 뒤 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문무를 겸비하고 풍채가 뛰어나 그가 조정에서 드나들 때는 모두 났을 옹고 바라보았다고 한다. 김여물은 호조, 예조, 병조의 좌랑과 정랑을 거쳐 충청도사, 안동현감, 순천부

사, 담양부사 등을 역임했다.

임진왜란 때 충주 탄금대에서 왜적과 싸우던 중 전세는 점점 조선군에게 불리해졌고 신립 장군이 김여물에게 "그대는 살기를 원하는가?"라고 묻자, 그는 웃으면서 "내 어찌 죽음을 아끼리오"하며 끝까지 싸우다가 왜적과 함께 탄금대 아래 강물에 투신하여 순국했다. 김여물은 탄금대전투에서 패할 것을 예견하고 "남아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바라는 바이지만, 나라의 수치를 씻지 못하고 뜻을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한낱 재가 되니 하늘을 우러러 한숨만 나올 뿐이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또한 가족에게는 "내가 이곳에서 죽더라도 우리 일가는 모두 임금님의 행재(임시로 머물고 있는 곳)로 가서 돕되 결코 난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다음해 그의 의관을 거두어 안산군, 지금의 와동에 장사지냈다. 김여물은 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1788년에는 장의(壯毅)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1832년에 순조는 임진왜란 240주년을 맞아 당시 신립·김여물 등이 순절한 충주 달천 터에 제사를 지내 그들의 충정을 기리도록 하였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다가 전사한 김여물에게 국가에서 충신의 정문이 내려졌다.

사세 충렬문의 왼쪽엔 아버지 김여물과 아들 김류의 신도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신도비는 임금이나 종이품 이상 벼슬한 사람의 무덤 앞이나 근처 길목에 세워 죽은 사람의 업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리라는 비석이다.

김여물 신도비는 granite 위에 비신을 세워 업적을 기록했다. 비의 맨 위쪽을 '이수'라고 하는데 용의 문양으로 장식하여 용이 몇 마리가 새겨져 있나 찾아볼만 하다. 아들 김류는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공신에 책록되었다. 병조판서 등을 거쳐 영의정을 역임하였고 1644년(인조 22년) 심기원이 반역을 일으키자 신속하게 평정한 공으로 1등 공신에 녹훈되고 순천부원군에 봉해졌다. 1991년, 김여물의 묘와 신도비는 안산시 향토유적 제4호로 지정되었다.

열녀는 충신 김여물의 후실인 평산 신씨, 김여물의 아들인 김류의 처 진주 유씨, 김여물의 손자 김경정의 처 고령 박씨, 김여물의 증손자 김진표의 처 진주 정씨이다. 이들은 청나라가 병자년에 난을 일으킨 병자호란(1636년) 당시 강화도로 피난을 갔는데 강화도가 청에 점령되자 오랑캐에게 욕을 당하느니 죽는 편이 옳다고 여겨 강화도 앞바다에 사세가 모두 몸을 던져 순절하였다. 후에 나라에서 사세에게 각각의 열녀 정문을 하사하여 이 집안의 충신과 열녀의 정문이 모셔져 있는 사세충렬문을 세웠다.

사세충렬문은 매년 안산문화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산역사 문화탐방을 실시하는 장소로 선정되어 많은 학생들이 김여물과 사세 열녀의 정신을 배우고 있다. 꽃향기 가득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안산 인물을 탐방하는 것도 좋은 역사 공부가 될 것이다.

📍 위치 사세충렬문 - 안산시 단원구 와동 151



김여물 장군이 탄금대에서 분전하는 모습을 그린 삽화



김여물과 김류를 기리는 신도비



사세충렬문 내부



## 오정각·고송정과 충신 김문기의 가문



오정각



고송정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7호 오정각(五旌閣)

꽃우물이 있어 예쁜 이름을 가진 화정동, 너빌마을에 들어서면 오정각이 마을을 굽어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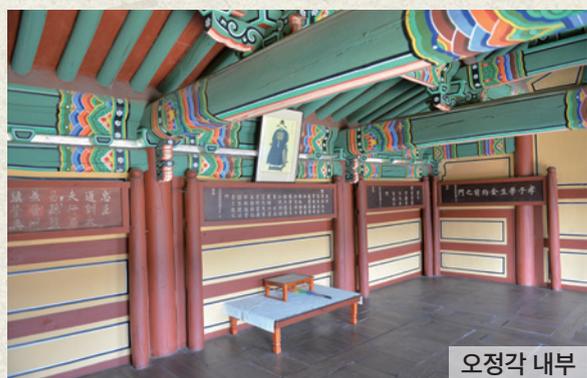
오정각에는 1456년, 단종 복위운동에 가담했다가 실패 후 사육신과 함께 참형 당한 이조판서 충의공 김문기와 그의 아들 김현석의 충신정문과 손자인 김충주, 증손자 김경남, 현손인 김약전의 효자정문이 봉안되어 있어 오정각이라 부른다. 오정각은 원래 1851년, 진사 김처영을 비롯한 안산의 유림(儒林)이 세덕사(世德祠)를 세워 김문기의 충절과 효행을 기렸던 곳이다.

그 후 화정동 김녕 김씨 가문의 충·효가 김충주와 아들 김경남과 손자 김약전 이후까지 이어졌음을 알고 1870년, 고종 7년에 오정각을 건립하여 대를 이은 이 집안의 충효를 기념하고 있다.

### 충신의 절개와 효자의 애절하고 따뜻한 가족 이야기

충신 김문기(1399~1456)는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어려서부터 효심이 지극하여 사람들은 그가 살던 마을을 '효자동'으로 부를 만큼 칭송이 자자했다고 한다. 김문기는 1426년 문과에 급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병조참의, 형조참판 등을 지냈다.

1455년,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공조판서 겸 삼군도진무로 있으면서 은밀히 단종 복위운동을 추진하다가 계획이 발각되어 사육신과 함께 모진 고문에도 뜻을 굽히지 않



오정각 내부

다가 군기감 앞에서 능지처사(陵遲處死)를 당하였다.

1757년, 영조 때에 충의(忠毅)의 시호가 내려졌고 1791년, 정조는 단종을 위해 충성을 바친 여러 신하들에게 '어정배식록'을 편정했다. 이 때 판서급인 김문기, 민신, 조극관은 삼종신으로 선정하고 김문기와 함께 복위 운동을 하다 같이 돌아가신 분들을 사육신으로 선정했다.

아버지 김문기가 참형에 처할 때 "세 임금의 명을 받아 총애를 받고 위기에 임하여서는 애석하게 운명하니 그 미진함이 가히 애석하도다"라고 시를 남기자 김문기의 아들 김현석은 "살신성인(殺身成人)은 옛 성인이 말한 바 있는데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라고 답시하며 사약을 받아 기꺼이 세상을 하직하였다.

### 눈물의 고송정과 망월암

마을에 있는 오정각을 지나 마하산 기슭으로 올라가다 보면 고송정이 있다. 김충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자 안산군 화정동 너빌 마을에 은거했다. 풀을 엮어 집을 짓고 솥을 만들어 파는 것을 업으로 삼았으며 스스로 호를 탄옹이라 정하고 평생 고기와 술을 먹지 않고 마의에 평립을 쓰고 다녔다.

김충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몹시 슬퍼해 아침, 저녁으로 소나무 곁에서 눈물을 흘려 눈물에 소나무가 말라 죽었다하여 순조 때 김충주의 9세손 김처일이 그 자리에 고송정(枯松亭)이라는 정자를 지어 조상의 효심을 기렸다. 또한 김충주가 마하산에 올라가 할아버지, 아버지, 단종을 그리워하며 단종이 계시던 영월을 바



탄옹고지

라보면서 울었던 바위를 '망월암(望越岩)'이라 하였다.

고송정 서쪽에는 김충주가 그 당시 직접 쓴 글자, '탄옹고지(炭翁古址)'를 암각한 바위가 있다. 마을 어른들은 그 자리가 바로 탄옹공이 집을 지어 살던 곳이라고 말한다.

### 버섯효자 김경남과 왜병도 감동하게 한 효자 김약전

김충주의 아들, 김경남은 화정동 너빌마을 사람들에게 효자 어른 혹은 버섯 효자로 불린다. 아픈 어머니가 버섯을 특히 좋아해 김경남은 여름이 되면 지성으로 산간을 헤매면서 버섯을 채취하였다. 어느 날 아침, 뒷산의 버섯이 감쪽같이 사라진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는 버섯이 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이를 기이하게 여겨 그곳을 '버섯들'이라고 부르고 그 버섯을 '효자 버섯'이라 하였다. 또 버섯이 났던 곳 바위에 '균원(菌苑)'이라는 글씨를 새겨 넣어 효심을 기렸다.

김경남의 아들, 김약전은 1523년에 아버지가 병이 나자 매일 종기를 빨아내며 호전되기를 하늘에 기원했다. 아버지의 변을 맞보아 병세를 살피는 지극한 효성으로 아버지의 병에 차도가 생겨 회복됐다. 그가 70세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마을 사람들이 모두 피난하려 하자 "도망가서 살기를 꾀하기보다 어려움에 처하여 이롭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득하였다. 며칠 뒤 왜병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100세가 넘은 부친을 모시고 있는 김약전의 효성에 감동하여 왜병이 사죄하고 물러갔다. 더구나 왜병들이 그 마을 입구에 '효자동은 추해도 범하지 말라'고 방을 써 붙이기도 하였다. 이로써 마을 이름을 성지골(姓支谷)이라 하고 김약전은 자신의 호를 성지당이라 하였다. 후에 병자호란 때에도 청나라 군사들이 이곳이 효자마을이라는 말을 듣고 노략질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정각 -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29  
고송정지 -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산 58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3438)  
김영미 명예기자\_flowerym@hanmail.net



**예술적인 감성과  
소통이 함께하는 문화거리,  
심을 주는 공간**

‘안산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심을 만큼 문화와 예술 감성이 가득한 공간, 행복한플레이스 거리가 눈길을 끌고 있다.

행복한플레이스 거리는 봄이면 벚꽃이 탐스럽게 만개하는 안산천변 인근 상록구 이동 636-4일대에 조성된 곳이다. 이곳은 몇 년간 하나 둘 들어선 감각적인 인테리어의 카페, 베이커리, 레스토랑 등 외식공간이 하나의 타운을 형성하며, 그 곳에서 펼쳐지는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공연들까지 입소문을 타 하나의 작은 문화공간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도로변으로 보이는 파랑, 빨강, 노랑의 산뜻한 색감과 독특한 디자인의 건물들이 특히 인상적이다. 인테리어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쓴 매장에서 SNS에 자랑할 만한 감성 사진도 건질 수 있다.

현재 이 거리에는 전문 셰프가 제공하는 이탈리아 요리 음식점과 전문 바리스타가 만들어내는 진한 향의 핸드드립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 유기농 재료로 만들어내는 건강한 빵을 만드는 베이커리,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맛볼 수 있는 와인바가 운영 중이다. 또한 직접 신선한 원두를 로스팅하는 시설도 갖추고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교육도 진행한다.

매장마다 소소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고 어쿠스틱 공연도 선보이면서 편안한 휴식공간 또는 모임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이미 이 거리가 맛과 문화예술 감성을 함께 할 수 있는 외식문화공간으로, 또 다른 이름인 ‘행복한커피거리’로도 불리고 있다.

4호선 중앙역과 안산시외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있지만 주변에 상권이 많이 형성된 것도 아니고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인적이 많은 것도, 교통량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전반적으로 거리가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다. 이런 이유로 상권이 형성되기에는 다소 침체될 수 있고 외진 느낌도 있는 이거리가 지금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이곳 주민들의 노력도 뒷받침 했다. 이 지역(이동)의 옛 지명인 동그랑방죽마을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동그랑방죽 문화예술마을 협의회를 만들고, 동그랑방죽 문화예술마을 환경개선 사업관련 주민제안을 경기도에 제출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그랑방죽 문화예술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중심에는 이 거리를 행복한커피거리로 알리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행복한플레이스 이준수 대표가 있다.

이준수 대표는 사업차 방문했던 안산과 인연을 맺은 지 올해로 14년차다. 그는 “처음 이곳에 카페를 열 때만 해도 외지고 무언가 활기찬 느낌이 없었다. 그런 분위기를 탈바꿈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며 “안산은 전국에서 손에 꼽힐 만큼 잘 조성된 훌륭한 도심녹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녹지를 잘 활용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둘레길을 잘 만들어 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남산둘레길, 경리단길처럼 멀리 가지 않아도 내가 살고 있는 도심 안에서 일상의 쉼과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기를 바라며, 도심 속 둘레길이 조성되면 ‘더 생동감 있는 도시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도로와 거리사이에 놓인 완충녹지공간을 예쁜 마을정원으로 탈바꿈 시키고, 미술, 음악, 문학 등 문화를 입혀 마을주민에게는 머물고 싶은 마을주민 커뮤니티공간으로, 안산시민에게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쉼을 얻을 수 있는 도심 속 둘레길 같은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동그랑방죽마을협의회는 녹지활용 및 자연과 문화공존을 주제로 전문가, 지역 주민과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안산시미술협회, 안산시여성문화회와 문화거리 협약을 추진, 문화예술마을 만들기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곧 갤러리와 미술협회 회원들의 작업실이 들어오면서 특색을 갖춘 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그랑방죽마을협의회는 마을을 더 특색 있고 안정적인 곳으로 조성하기 위해 음악창작공간 등 문화공간과 안산천변 둘레에 차량격정 없이 머물 수 있는 테라스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행복한플레이스 문화거리는 평일은 오전 10시, 주말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진행되는 공연 문의 및 안내는 전화 070-5055-3851(행복한다이닝)로 하면 된다.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조구나라1길 53(이동)  
송민아 명예기자 junseo1000@hanmail.net



행복한 베이커리



직접 로스팅하는 원두



공연을 즐기는 손님들



##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사용설명서



셀프 케어 측정시설



### 시민·공단 근로자 건강관리 시작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문 열다

안산시단원보건소가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서부건강센터)의 문을 열고 안산 서부권역 시민과 안산스마트허브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16일 개청한 서부건강센터는 신길동, 백운동, 원곡동, 초지동 등 안산 서부권역에 거주하는 약 12만 명의 시민과 안산스마트허브 근로자 약 15만 명의 건강관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부건강센터에는 간호사, 영양사, 건강 운동관리사 등 9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금연·운동 상담 ▲비만·영양 상담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뿐 아니라 스마트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하나의 좋은 습관이 평생 건강을 지킨다! 건강습관개선 운동 ▲공단 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반월공단 근로자 방문 건강상담소 ▲인생 뭐 있어 생로병사지(知) 건강 청춘 창조대학 등 특화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서부건강센터는 지난 2017년 5월 지역주민 사업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됐다. 단원구 신길중앙로 17에 2019년 5월 27억 원이 투입돼 착공됐으며, 올 1월 지상 3층, 연면적 979.8㎡ 규모로 준공됐다.



### 지역 주민이 진짜 주인 되는 건강한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서부건강센터는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객체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주인이 될 수 있는 열린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강·청춘 창조협의체'를 구축해 시설 이용뿐 아니라 시설 운영에 있어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 주도의 건강 동아리를 운영하거나 재능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재능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 뿐만 아니라 시설 3층에 식물과 함께 숨 쉬는 공간, 힐링정원을 조성하는 일에 안산 시 시민정원사들에게 역할을 부여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간 하나에도 주민들과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다.



스마트 운동실에 비치된 운동기구들



### 전국 최초 스마트모바일 운동장비 구축 효과적인 건강관리 가능

서부건강센터는 특히 전국 보건소 시설 최초로 스마트모바일 운동 장비를 구축하고 개인 스마트폰과 연계할 수 있는 개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개인의 건강과 운동 데이터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다.

건강관리를 원하는 시민은 센터 2층에 위치한 스마트 운동실에 방문해보자. OnFit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고 IC카드를 발급받은 후 스마트 운동장비를 이용해 기초 체력을 측정하면 전문 건강 운동관리사로부터 운동 처방을 받고 각종 지능형 운동기구를 활용해 운동수행 및 운동지도를 받을 수 있다. 운동 과정과 결과는 개인 스마트 기기와 모바일 앱으로 연동해 일상적으로 관리되고 평가돼 처방된다.

또 함께 구축된 스마트 미러 운동시설은 마치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하듯 거울 속 화면을 통해 송출되는 영상을 보며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다. 개인 트레이너를 두지 않고도 자신만의 시간과 상황에 맞게 운동할 수 있고, 스마트 장비를 이용해 기록화 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 찾아가는 안산스마트허브 근로자 건강상담소 운영

안산스마트허브 근로자 약 15만 명의 생활권이기도 한 서부권역에 위치했기에 공단 근로자들의 건강 지원 역할이 그만큼 중요할 것이다. 근로자들이 생활 속에서 서부건강센터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여건을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 상담 프로그램 등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반드시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의 의무가 없으며 안산스마트허브에는 이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경우 열악한 작업환경과 근무조건이나 오히려 일상적인 보건관리 미흡으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높다.

그래서 서부건강센터에서 근로자 건강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에 방문해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반적인 건강상담을 비롯해 금연상담, 운동 및 영양 상담을 진행하고 건강관리 대상자는 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해 후속 과정을 추진한다.

서부건강센터는 안산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이다. 건강에 관심 있고 생활습관을 바꾸고 싶은 시민, 금연과 운동을 체계적으로 시작하고 싶은 시민, 건강 관련 재능기부와 건강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이면 누구나 서부건강센터의 문을 두드리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식적인 시설 활용은 자제하고 있으나 이후 시설 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031-481-6464~5)로 문의하면 된다.

2020 안산 방문의 해 특징!



## 대부도 어디까지 가봤니?



### 공룡이 살던 대부광산 퇴적암층



시화방조제를 지나 대부도의 끝자락, 탄도로 가다보면 선감동 일원 야산에 신비로운 암벽에 둘러싸여 커다란 호수를 이룬 대부광산 퇴적암층이 있다.

1997년 채석장이던 대부광산에서 암석 채취 중, 중생대 백악기 때의 공룡 발자국 및 식물화석이 발견돼 2003년 5월, 경기도 기념물 제194호로 지정됐다. 2000년에는 암반 발파 작업 중 지표로부터 30~40m 깊이에서 중생대 백악기 시대의 초식공룡의 것으로 추정되는 공룡발자국 화석이 한쪽 발견됐고, 이후 총 23개의 공룡발자국 및 식물화석이 발견됐다. 공룡발자국 화석은 갯벌 지역에 찍힌 발자국에 퇴적물이 쌓여 있다가 화산활동 등으로 인한 지각변동의 영향으로 퇴적층 사이에 화석으로 굳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광산 퇴적암층은 중생대 당시의 식생 및 환경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지질층이다. 대부광산 퇴적암층 중, 화산 폭발 시 퇴적된 입자에 대한 연대 측정을 실시한 결과 퇴적 시기는 공룡이 번성했던 중생대 후기인 7천만 년 전 전후이다. 퇴적층을 구성하는 많은 층리의 색깔 및 두께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지역이 당시 호수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부광산의 절개된 퇴적암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껍게 절개돼 있고 제주도에 서 볼 수 있는 화산암체와 공룡 발자국 화석 등이 분포하고 있다. 서울 근교에서 유일하게 중생대 지질층과 화산암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당시의 식물 및 환경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질학적으로 중요하다.

대부도와 지리적으로 연결된 시화지구에는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 시대에 공룡을 알 수 있는 커다란 박물관이다. 대부도의 대부광산의 퇴적암층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 화석과 시화지구 고정리의 공룡알화석을 통해서 볼 때 이곳은 공룡들이 집단으로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9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일대에서 시화호 간척지의 육지화에 따른 생태계와 지질 변화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던 중 시화호 남쪽 간척지에서 천연기념물 414

호 공룡알화석 산출지가 발견됐다. 바닷물이 막히기 전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었던 이 지역은 1억 년 전으로 추정되는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퇴적층인데, 공룡알은 시화호의 해수가 빠져 나가면서 육상에 노출된 섬의 표면이 풍화와 침식에 의해 깎여 나간 표면에 주로 노출돼 있었다.

이 외에도 대부광산에서 볼 수 있는 줄기에 마디가 있는 늪지 갈대 등의 식물화석과 생물의 흔적이 있는 화석도 대량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공룡알화석이 여러 퇴적층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시화호 일대가 약 1억 년 전 공룡의 주요 서식지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곳은 대부분 중국과 몽골 지역이었으나, 대부광산의 공룡 발자국화석과 많은 공룡알 화석이 한꺼번에 발견된 화성 고정리의 공룡알 화석 산출지는 시화호 일대가 공룡의 서식 근거지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환경 및 생태계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자료로 가치가 높다.

대부광산 퇴적암층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은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후 1족은 현재 어촌민속박물관 안에 전시 중이다. 아이들은 상상속의 공룡의 크기를 생각하며 자신의 발자국 크기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다른 발자국 화석은 안산시에서 보관중이며 그 중 3기는 2002년부터 성호박물관 내 공원으로 옮겨져 전시됐으나 지금은 대부광산 퇴적암층이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옮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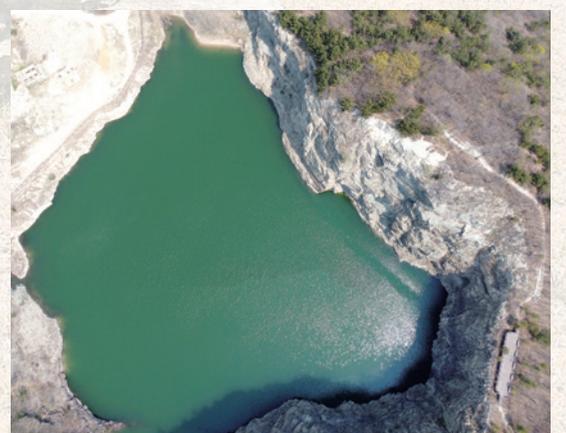
퇴적암층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호수는 물의 깊이를 알 수 없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태고적 신비함을 더해준다. 대부광산 퇴적암층 주변에 널려 있는 돌들을 자세히 보면 그 당시의 식물화석이 새겨져 있는 것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 운이 좋은 날은 퇴적암층 꼭 대기에 살고 있다는 수리부엉이 한 쌍도 볼 수 있다.



대부광산 퇴적암층에서 볼 수 있는 공룡발자국 화석



어촌민속박물관에 전시된 공룡발자국 화석



위에서 내려다 본 호수

위치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147-1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3438)



## 동주염전, 소금 명품의 가치를 말하다

### 100년을 이어온 소금명가

안산9경 중 한 곳인 동주염전은 일제 강점기부터 소금 생산을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백씨가문이 정통 천일염의 명맥을 이어 올바른 소금에 대한 굳은 의지로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존 전통방식 그대로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 대부도 38만평의 염전에서 태양의 열과 바람의 기운을 담아 소금을 생산하고 있으며 소금이 만들어지는 기간은 일조량이 풍부한 4월초부터 9월 말이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자연의 품에서 생산된 동주염전의 소금은 과거 청와대에 납품할 정도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 소금의 품질을 높이는 웅기토판염

천일염이라고 다 같은 품질의 천일염이 아니다. 천일염은 생산하는 환경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진다.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천일염은 장판염이다. 장판염은 갯벌바닥에 PVC 고무장판을 깔아서 천일염을 생산한다. 이는 갯벌바닥에 장판을 깔면 생산이 쉬워지고 생산량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갯벌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들의 동화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좋은 미네랄과 영양분이 장판에 막혀 천일염에 제대로 스며들지 못한다. 또한 빠져나가야 할 유해성분이 장판에

막혀 천일염 성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고 나트륨 농도가 높다.

이에 비해 동주염전 천일염은 갯벌 바닥에 웅기로 구운 타일을 깔아 생산하는 웅기토판염이다. 웅기토판에는 타일 사이로 틈이 있어 다양한 미생물들의 동화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유기물질이 소금에 스며들어 천일염의 풍미를 높인다. 또한 중금속 등 유해성분이 갯벌에 의해서 정화작용을 거칠 수 있고 간수가 많이 빠져 쓴 맛이 적고 염도가 낮으며 미네랄이 풍부해 담백한 맛을 낸다.

갠파리소금은 대부도 웅기토판염을 대표하는 공동 브랜드이다. '갠파리'는 깨진 웅기 또는 사기조각을 일컫는 말로, 염전 바닥의 구성 물질로 사용된다. 갠파리 바닥의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을 '갠파리소금'이라 일컫는다.

###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한 동주염전 천일염

동주염전 소금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보다 미네랄이 많고 염도가 낮아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를 획득 했으며 각종 대회에서 최고 품질의 상품으로 인정받아 상을 휩쓸고 있다.

소금의 성분을 보면 신안 천일염보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 함량이 조금 더 높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

스 게랑드 소금보다 월등히 높은 각종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동주염전의 우수한 소금 품질에 비해 저렴한 수입산 소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최근에는 일본에 한국산 천일염의 우수성이 알려져 한국염전으로 소금 사러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 5월에만 만나볼 수 있는 송화소금

매년 5월 초부터 중순 전후로 송화(소나무의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에만 만들어지는 소금이다. 송화소금을 생산하려면 염전 주위에 소나무가 있어야 한다. 짧은 기간에만 생산되는 것이니 귀해서 비싸게 판매 된다. 송화소금이 좋은 이유는 송화가루에서 나오는 독특한 풍미 때문이다. 또한 단백질, 탄수화물, 무기질이 풍부하고 비타민C가 많다.

특히 송화가루에 포함된 칼슘과 비타민B1, B2 등은 인체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 개선과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지방간 해소, 노화방지, 피부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천일염 중에서도 5월에 나오는 송화소금은 최고의 소금으로 뽑는다.

올해는 염전 체험장을 재정비하는 관계로 체험은 할 수 없지만 소금 생산을 위한 염전은 그대로 운영 한다. 소금 구입은 대부도 특산품매장(032-890-4289) 또는 시화나래휴게소에 방문하거나 동주염전에 전화 후택배로 수령할 수 있다.

5월 초 송화소금이 만들어질 때 직접 방문해서 소금 만들어지는 것도 직접 보고 맛도 느끼며 품질 좋은 소금을 직접 구매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위치 : 안산시 단원구 동주길 18(대부동동)  
문의 : 동주염전(032-887-9921)  
김영미 명예기자\_flowerym@hanmail.net



웅기로 구운 타일 위에서 생산중인 소금



염전작업

## “언니랑 같은 나이가 되었네요”

### 세월호 참사 6주기, 4.16기억교실에서 슬픔을 공부하다

세월호 참사 6주기였던 2020년 4월16일. 세상만물이 새로 태어나고 움트는 계절, 안산에서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던 순간이 동시에 겹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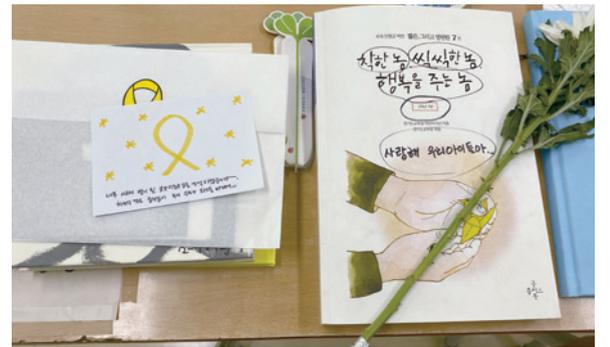
4.16기억교실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교실을 그대로 재현해 기록으로 보존한 공간이다. 2014년 4월 이후 희생 학생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던 단원고 교실은 2016년 8월에 옛 안산교육지원청 건물에 임시로 이전한 이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곳에는 그 당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사용하던 책상과 의자, 칠판과 학급 게시판 등이 보존돼 있다. 책상 위에는 참사이후 유가족과 친구들, 전국에서 방문했던 국민들이 남기고 간 포스트잇과 손 편지, 크고 작은 소품들이 정갈하게 놓여있다. 당시 절박함으로 칠판에 가득 적힌 ‘돌아오라’는 메시지, 몇 달이 흘러 그리움과 아픔으로 적어 내려간 ‘보고싶고, 사랑한다’는 크고 작은 메시지들이 6년 전 그 날들의 충격과 슬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아이돌 가수의 사진이 놓여있던 한 소녀의 책상 위에 누군가 붙여 놓은 포스트잇 글귀를 유심히 들여다봤다. ‘나다시 왔어요. 언니랑 같은 나이가 되었네요. 여긴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6년이란 시간, 그때 초등학교생이었던 아이는 어

느뒹 당시 별이 된 언니들만큼 자라 있었다. 아이돌 인피니트를 좋아한다는 공통점 하나로 얼굴도 본적 없는 한 언니를 위해 가져다 놓았던 포토카드는 책상 위에서 외롭게 반짝였다. 벚꽃은 6년 전 그날처럼 활짝 피었지만 사진 속에서 밝게 웃던 소녀는 18살 나이에 그대로 멈춰 있다.

기억교실 10개 반과 교무실 등 공간 곳곳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있다. 304명의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얼굴과 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깊은 그리움이 담겨있다. 사진기, 야구공, 책, 인형 등 책상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소품에는 사진작가, 야구선수, 시인, 요리사를 꿈꿨을 별이 된 아이들의 소망이 담겨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동생을 잃은 언니는 미처 동생 손에 직접 들려주지 못했던 청첩장을 하늘에 있는 동생에게 보낸다. 매년마다 보고 싶은 친구들, 한없이 그리운 딸과 아들, 동생을 그리는 유가족들의 마음이 하늘에 보내는 편지가 되어 책상에 차곡차곡 쌓였다.

참사 이후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란 책을 냈던 신형철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영원히 해야 하는 공부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슬픔에 대한 공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한 적 있다. 기억교실은 슬픔을, 타인의 고통을, 6년 전



한순간에 잃어버린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100%이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한편 4.16기억교실은 2021년 현재 건물 옆 옛 안산교육지원청 별관 자리에 ‘416민주시민교육원’이 건립되면 보금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기억교실 앞쪽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사가 끝난 후 이전 작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기억교실을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하고 있다.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34(고잔동)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hanmail.net

##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새롭게 태어난다

### 별관 증축 통해 안산시 도서관 컨트롤 타워 역할도 담당



중앙도서관 별관 증축 조감도

안산 중앙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 또 안산시 도서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일부 증축 공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중앙도서관은 그동안 ‘구텐베르크 안산 프로젝트’로 책 읽는 도시 조성 및 안산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해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해왔다. 이는 안산시 도서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 및 안산시 공동보존서고 조성을 통해 관내 도서관의 자료 수집과 보존 등 체계적 장서관리, 다양한 계층을 위한 시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도서관은 오는 5월부터 올해 말까지 별관 증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금의 도서관 바로 옆 부지 1만1,334㎡에 연면적 645.75㎡, 지상3층 규모의 별관을 짓는다는 것이다.

별관 증축을 통해 1층 북카페, 2층 동아리실, 3층 문화·커뮤니티공간으로 알차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동아리실로 사용하던 기존 본관 지하1층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한다. 보존서고 공사를 하게 되는 이곳도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올해 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서고를 확충해 관내 각 도서관 자료실의 적정서가 상태 유지와 장서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감골, 성포, 관산도서관의 기존 보존서고 공간을 도서관 이용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 이용자 편의 증대는 물론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안산 중앙도서관 이경희 관장은 “중앙도서관이 안산의 대표도서관으로써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하고 각종 동아리와 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자책과 안심대출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시민들의 지식에 대한 갈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증축하고 있는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다” 또한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도서의 지식뿐만 아니라 각종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효경 명예기자 poet-hk@hanmail.net

## 안산시, 차량 2부제 시민 참여자 모집

### 공영주차요금 20% 감면 등 혜택

안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만 실시하던 차량 2부제를 시민들의 자율참여 방식으로 전환해 실시한다. ‘시민 차량 2부제 자율 참여’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시행되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진행된다.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 운전자만 참여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한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차량 2부제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발전 및 농업부문 관리 강화 ▲국민건강 보호 ▲주간예보 등이 시행된다.

차량 2부제에 동참하고 싶은 시민은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새소식란을 참조하여 ‘차량 2부제 자율 참여 동의서’ 작성 후 안산시청 환경정책과에 우편 또는 팩스(031-481-3210)나 이메일(cyj202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하는 차량에는 관내 공영유료주차장에서 주차요금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스티커가 발급되며 실천 여부가 확인되면 미세먼지 마스크도 지급받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4μg/m³로 전년 동기 대비 27%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환경정책과(031-481-2893)

## 올해 안산시 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 실시... '주민이 마을 주인이 되는' 74개 팀을 10월 말까지 내 고장 역사 알기·미술치료·봉사·축제 등 추진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2020 안산시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이 4월부터 시작됐다. 2008년부터 시작된 주민공모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하는 공동체가 늘고 있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그에 맞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공모사업은 보조금 지원 기관에 따라 안산시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과 경기도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2개 분야로, 일반공모사업(마중물, 마을공동체 활성화)과 기획공모 사업, 마을공동체연대사업, 마을공동체기반마련, 거점공간 조성으로 세분화하여 주민들의 신청서를 받았다. 올해는 안산시 25개동 중 24개동에서 총 103팀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그중 74개팀이 선정되어 4월 협약식 후 공모사업이 시작되고 사업 기간은 협약일부터 10월31일까지이다.

보조금이 적은 마중물 사업의 경우, 주민공모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로 공모사업 여러 분야 중 신규 참여팀의 비율이 높다. 올해는 마중물 사업에 선정된 32개 팀 중 23개 팀이 신규 참여 팀으로 구성되어, 주민공모사업이 안산시 전체로 점차 확대되고 있고 시민들의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사업내용 또한 청소년 관련, 미술치료, 내 고장 역사 알기 등 다양한 주제를 봉사,

축제, 전시회 등의 형태로 이웃과 소통하고 나눔으로써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열의를 짐작케 한다.

지원금 규모가 더 큰 마을공동체활성화, 마을공동체기반마련 사업에 신청하면 보조금을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마중물 사업으로 역량을 키운 공동체들이 사업내용을 확장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마을공동체 연대사업은 살기 좋은 동(洞)을 만들기 위해 동 단위로 마을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에는 14개 동이 참여 한다. 기획공모사업은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해 공동체 활동을 평가, 연구하는데 지원하며 거점공간 조성사업은 마을공동체의 활동과 확산을 위해 주민들의 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기획공모사업의 경우, 주민공모사업 3년 이상의 추진 경력, 거점공간 조성사업은 1년 이상의 추진경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올해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주민공동체가 보다 바른 마을,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해 활동한다. 전국적으로 주민공동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안산의 주민공동체 활동은 타 지역의 모범사례로 꼽힐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민공모사업 담당자 백준욱 교육팀장은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0년 주민공모사업에 많은 주민이



신청해주셨다. 최근 청소년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당 주제에 대한 신청 비율이 두드러졌다"며 올해 공모사업의 특징에 대해 밝혔다.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임과 단체교육 대신 회계교육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홈페이지(www.happyansan.or.kr)에 게시했다. 또한 주민대학 동영상도 게시할 예정인데 안산시민 누구나 동영상을 보며 마을만들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안산시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이 미루어지거나 중단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문의 :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031-409-7960)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 안산그리너스FC, 안산시민 위해 코로나19에 맞서다!

#### 관내 방역 활동과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 전개



안산시를 연고지로 둔 프로축구 구단 안산그리너스FC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에서 방역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끈다.

지난 2월29일 개막했어야 할 K리그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잠정 연기됐고 여전히 개막 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안산그리너스FC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을 위해 직접 활동에 나선 것이다.

활동에 앞서 직원들은 방호복을 입는 법부터 소독약 만드는 방법, 분사기 사용법,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을 교육받았다. 후원의 집 '한산'을 시작으로 관내 업체들을 돌며 방역 활동을 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을 안내했다.

3월에 이어 4월에도 꾸준히 '그리너스 방역소년단'이라는 이름으로 관내 곳곳에서 방역활동을 하며 구단 SNS를 통해 시민과 소통했다. 또한 방역활동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KF94 방역용 마스크 1만

장을 기탁하기도 했다. 김호석 구단 대표이사는 "안산 시민이 주신 사랑 덕분에 구단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마스크 기탁을 결심하게 됐다"며 "마스크 구입이 어렵거나 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도움의 손길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그리너스FC의 김길식 감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김 감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안산그리너스FC에 보내주시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성금을 기탁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침체된 지역사회가 하루 빨리 활기를 되찾고, 푸른 그라운드에서 안산 시민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안산그리너스축구단은 시민에게 받은 사랑을 365일 나누겠다는 의미의 'VISION 365'를 목표로, 실제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19년에는 프로스포츠 구단 역대 최다인 381회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의 :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031-480-2002)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 전현직 EBS 강사 초청 유튜브 강의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청소년 돕기 위해 마련



안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유·초·중·고교 등교개학 연기로 학생들의 학습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관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산시유튜브 방송을 통해 특별 강의를 진행했다.

시가 마련한 특별 강의에는 영어·수학 등 주요교과 학습법을 현직 고잔고 교사인 김현준·유재훈 씨가 직접 출연해 주요 교과목의 중요성과 함께 교육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특히 혼자 공부하는 방법으로 개인방송(유튜브 '혼공TV')을 운영해 4만여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 허준석 교사(경기도교육청)가 출연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스스로 학습법도 소개했다. 유튜브 방송은 4월20일부터 3일간 진행됐으며 첫 방송은 허준석 교사의 '가정에서의 스스로 공부법', 다음날 김현준 교사의 '수학 공부법', 마지막 날 유재훈 교사의 '영어공부법'으로 마무리 됐다.

생방송을 놓쳤더라도 유튜브에서 '안산시유튜브'를 검색하면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문의 : 안산시 공보관(031-481-3126)

## 안산의 걷기 좋은 길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며 혼자 걷기 좋은 길

## 조선시대 별망군이 걸던 안산의 성곽길 별망성지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서울성곽길, 수원의 화성성곽길 이 있다면 우리고장 안산에는 별망성지가 있다. 1979년, 경기도 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된 안산 별망성지는 단원구 초지동 656에 위치하고 있다. 안산스마트허브(반월공단) 초입에 있는 별망성지는 주차장 입구에 보이는 안내판 뒤로 경사가 완만한 돌계단을 조금만 오르면 복원된 성곽을 둘러볼 수 있어 접근성이 좋다.

별망성지는 조선시대 초기 해안으로 침입하는 왜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바닷가에 인접한 두 곳의 낮은 산봉우리를 서로 연결하여 돌로 쌓은 성이다. 조선 시대 초기의 기록에 이곳에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니 15세기 이전에 이미 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록에는 정확히 언급되지 않은 성곽의 이름 '별망성'은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별망'이란 초지진의 별망군(別望軍)들이 망을 보던 망루가 있던 곳이어서 별망이라 불렀으며 별망산과 별망성의 명칭도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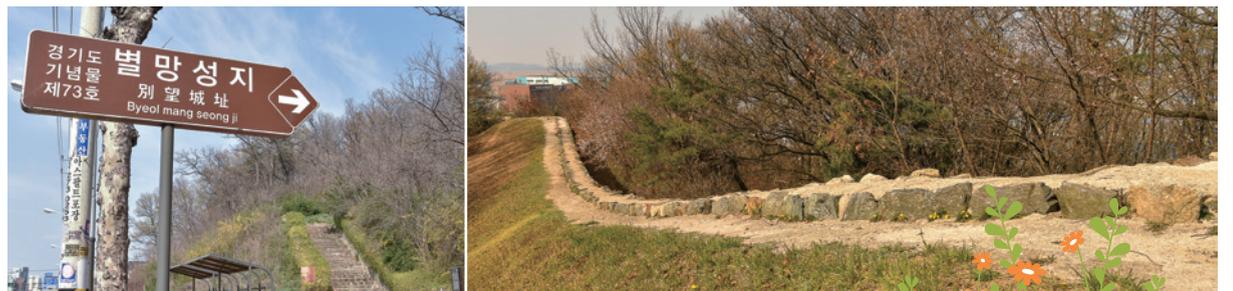
별망성은 바다에 근접해 있는 야산의 능선을 연결하고 남쪽으로는 해안에 닿도록 선박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안 평산성(平山城)이다. 바닷가에서 내륙 쪽으로 향하

도록 하여 방어를 목적으로 쌓은 별망성지의 성 안 건물터로 추정되는 평지에서는 깨진 기와와 그릇 조각들이 많이 발견됐다.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는 1646년(효종 7년)에 이곳의 초지진을 강화도로 옮겨 이곳을 1초지, 강화도의 것을 2초지라 하였다. 이곳에 있던 초지양영(草芝梁營)은 같은 해 강화도로 옮겨가면서 폐지되었다. 별망성지는 17세기 중엽에 폐기되기까지 약 250년간 서해 바닷길을 지킨 서해안의 군사요충지로서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이다.

성벽의 높이는 1.2~2.1m이고 둘레는 1천92m라는 옛 기록이 있으나 임진왜란과 6.25전쟁을 거치는 동안 거의 파괴되었다. 1988년에 복원했으며 현재의 성벽은 크기가 축소되어 복원된 것으로 길이 225m, 높이 1.45m이다. 별망성의 바깥은 돌을 수직에 가깝도록 쌓았고 안쪽은 완만하

게 흙을 다져놓아 평평한 상태라 가벼운 산책을 즐기기에 추천할 만한 성곽길이다. 매년 낙엽이 쌓이는 늦가을이면 별망성지에서 안산시 전통 민속문화행사 '별망성 산신제'가 열리고 있다. '별망성 산신제'는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 유교식으로 진행된다. 현재는 텅 빈 옛 성터이고 바다 대신 공단이 더 잘 보이는 아쉬움이 있지만, 서해안을 방어하던 역사적 장소의 의미를 떠올리며 성벽을 따라 조용히 산책하고 서해안의 일몰을 감상하기 좋다. 오랜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활동량이 떨어진 몸을 이끌고 한적한 성벽을 따라 걸으며 잠시 조선시대 별망군이 되어 옛 수군기지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은 어떨까.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56



### 따사로운 날씨에 함께 걷기 좋은 길

## 바닷길이 열리는 오감자극 생태놀이터 누에섬 가는 길

따스하다 못해 한낮엔 반팔을 입을 정도로 더워지는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코로나19 걱정 없이 탁 트인 바닷길을 걷고 싶다면 누에섬으로 가보자. 대부도와 제부도 사이에 있는 무인도, 탄도에서 1km 앞 바다에 위치한 누에섬은 멀리서 보면 누에를 닮았다 해서 누에섬이라고 불린다.

대부도에 방조제가 만들어진 후, 섬에서 육지로 탈바꿈한 탄도에서 누에섬으로 가는 길은 썰물 때만 걸어갈 수 있는 신기하고 재밌는 바닷길이다. 하루 두 번 열리는 신비한 바닷길을 놓치지 않으려면 출발 전 미리 안산 탄도항 물때표에 맞춰 누에섬 방문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탄도항에서 누에섬까지의 거리는 약 1.1km. 도보로 왕복 32분 정도지만 아이들과 천천히 걸으며 열린 갯벌을 구경한다면 1시간 이상의 코스이다.

탄도항에서도 보이는 누에섬 3개의 풍력발전기는 2009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바다 위에 세워졌다. 이러한 이국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면 누구나 인생사진을 건질 수 있는 대표 포토존이다. 누에섬에서 머물 시간이 넉넉하다면 코로나19로 임시 휴관중인 등대전망대에 가보는 것 대신 누에섬의 둘레길을 한 바퀴 돌며 여유롭게 서해안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누에섬으로 가는 바닷길은 아이들과 함께 바다 위를 나

는 갈매기와 갯벌에 물결무늬를 만드는 칠게, 방게 등을 관찰하며 생태체험을 하기에 적격이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길 양옆으로 펼쳐진 갯벌체험장에서는 물길이 열렸을 때만 조개잡이체험이 진행된다. 호미와 바구니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조개잡이체험은 대인 9천원, 소인 7천원의 유료체험으로 진행된다. 조개잡이체험은 탄도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www.tando.or.kr)에서 날짜와 시간을 확인 후 전화(032-885-3745)로 신청이 가능하다.

바다 풍경과 갯벌체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누에섬은 경기만의 대표적인 지붕 없는 박물관, 에코 뮤지엄 중 하나로 안산의 역사와 생태자원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밀물시간 때문에 서둘러 누에섬에서 탄도로 돌아왔다

면 주차장 맞은편 식당에서 출출해진 배를 바지락갈국수로 채우거나 해안 쪽 산책로에 군데군데 있는 테이블과 벤치에 앉아 집에서 준비해 온 간식을 가족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다. 안산 시내에서 자가용으로 이동하면 해안 드라이브를 즐기며 탄도항에 도착 후 어촌민속박물관과 탄도항의 넓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며 123번 버스를 타고 탄도 종점에 하차하여 탄도항과 누에섬을 차례로 둘러볼 수 있다.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열린 바닷길을 품은 오감자극 생태놀이터 누에섬을 따뜻한 5월, 가 볼 한 곳으로 추천한다.

위치 :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길 7(선감동) 김선영 명예기자\_rimmom@korea.com



# 시민기자가 간다!

마을을 대표하는 생생마을기자단, 초·중·고·대학생으로 이뤄진 학생기자단, 특색있는 글솜씨를 가진 SNS시민기자단이 전하는 안산시의 생생한 소식. 안산시 시민기자단은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써내려갑니다. 기사제목 좌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기사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헌혈, 나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국가적 위기 극복에 늘 새마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혈액이 많이 부족한 이때, 안산시새마을회가 헌혈 동참 캠페인에 앞장섰습니다. 대한적십자혈액원에 문의하여 단체 헌혈을 등록하였더니 헌혈차를 보내주셨습니다. 헌혈차 한 대에 동시 헌혈 가능한 인원수는 4명.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켜야하기 때문에 30분 간격으로 조를 짜서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합니다. 당신도, 헌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한숙희 생생마을기자



## 꽃길에 힐링이 되는 대부도 대금산

대금산은 단원구 북대부동에 위치해 있는 해발 119m의 뒷동산 같은 산입니다. 전통사찰 쌍계사가 들머리이며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랑잎 사이에서 야생화 현호색이 곱게 피어 눈에 들어옵니다. 현호색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자세히 보면 어린 새들이 먹이를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대금산에서는 이외에도 은방울꽃, 미나리아재비 등 많은 야생화를 볼 수 있습니다.

• 이금순 SNS시민기자



## 올해는 사진으로 안산 벚꽃놀이 가요!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답게 꽃피운 안산의 벚꽃! 안산에 있는 공원들은 물론이고 동네 구석구석까지 핑크빛으로 물들었지만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제대로 벚꽃 구경을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지금은 벚꽃 구경할 수 있는 시기가 다 지났지만 안산 곳곳의 벚꽃 사진을 감상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호 SNS시민기자



## 코로나19 재난상황 정보 원곡 클라스로 전달하다!

안산시에는 8만 8천여 명의 외국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감염예방수칙 포스터와 현수막을 13개국 언어로 제작해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상황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통역하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 채널 '원곡 클라스'를 개설했습니다. '원곡 클라스'에 참여한 러시아, 베트남 국적의 다문화 선생님과 함께 진행한 인터뷰,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 김병국 학생기자



## 가지각색의 이야기가 담긴 안산의 동별 유래

안산의 동 이름에는 가지각색의 뜻과 역사가 담겨있습니다. 동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떠한 역사가 담겨있는지 동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부동은 옛날에 선녀가 내려와 목욕하던 우물(석수굴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선부리라 하였다고 합니다. 마치 동화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 신기하네요. 내가 살고 있는 동 이름의 유래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블로그에 방문해 확인해보세요!

• 조현진 학생기자



## 산봉이 수려한 수암봉 봄 산행 떠나요

수암봉으로 가는 4개의 코스 중, 제가 선택한 1코스는 입구부터 정상까지의 거리가 약 1.5km 정도였어요. 중간 중간 쉼터도 많고 약수터도 여러 개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답니다. 코스는 각자의 체력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암봉 정상에서는 탁 트인 안산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요. 노적봉과 광덕산부터 수인산업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까 아찔하기도 하면서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 이예은 학생기자



## 상록구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 이동

## 생필품 및 간식 나눔 사업, 비대면 '문 앞 배송' 방식으로 진행

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월17일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든 독거노인과 온라인 개학을 맞은 저소득 아동 등 50가정에 생필품 및 간식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

생필품 및 간식 나눔 사업은 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 CMS 후원금 250만원과 공동모금회 후원 쌀(10kg) 50포대로 마련했으며, 쌀과 과일, 반찬, 간식, 생필품 등 11종의 구성으로 지역상점을 통해 발품을 팔아가며 알차게 준비했다.

이동협의체 위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방안으로

조를 나누어 각 가정에 미리 연락해 비대면 배송 방식으로 문 앞 배달 또는 약속장소로 배송된 물품 사진을 찍어 보내고, 수령여부 확인과 안부를 묻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나눔활동을 진행했다.

박성중 민간위원장은 "이동 지역 내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워진 독거어르신과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들에게 협의체 위원들이 영양가 있는 간식과 과일 등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상점에서 구매한 물품으로 침체된 관내 상가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이동행정복지센터(031-481-5657)

### 본오동

## 나대지 정비해 향기 가득한 꽃밭 만들어 쾌적한 환경 조성

본오1동행정복지센터는 '향기로운 가득한 꽃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방치된 나대지를 정비해 봄기운 완연한 형형색색 꽃밭을 조성했다.

나대지 주변은 무단 투기된 생활쓰레기와 건축폐기물 등으로 인해 보기에 좋지 않고 불법 농작물 경작으로 인한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본오1동은 방치된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수거하고 이곳에 봄꽃을 심어 지역주

민에게 아름다운 심터를 제공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게 됨은 물론, 깨끗함과 활기 넘치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관계자는 "생활쓰레기가 방치된 곳을 찾아내어 지속적으로 정비해 깨끗하고 쾌적한 본오1동을 만들어 지역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본오1동행정복지센터(031-481-5648)



### 성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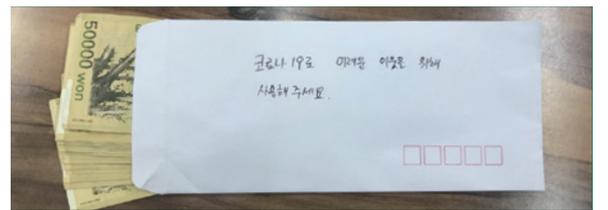
## 익명의 주민,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전달

성포동행정복지센터는 익명의 기부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침체되어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40대 중반의 남성 기부자는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현금을 기부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했다.

김영국 성포동장은 "선행을 베푸신 기부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부탁드렸으나 밝히길 원치 않으셨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는 익명의 기부자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끼며 이 기부금은 꼭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소중한 기부금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해 성포동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성포동행정복지센터(031-481-5760)

### 반월동

## 제이코퍼레이션, 살균소독제·향균탈취제 나눔

상록구 반월동 소재 (주)제이코퍼레이션에서는 지난 4월 8일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살균소독제와 향균탈취제(총 300만원 상당)를 관내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반월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정인 (주)제이코퍼레이션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관내 취약계층들은 더 힘들 수 있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 후원물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영조 반월동장은 "기업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균소독제 및 향균탈취제를 후원해 주신 기업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이렇게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기에 다함께 힘을 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 받은 물품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문의 : 반월동행정복지센터(031-481-5710)



## 단원구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의 소식이 궁금하다.

### 호수동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상가 방역활동 진행



호수동 행정복지센터는 3월27일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

천하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민원실 내 대기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민원실 외부나 3층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민원실 내 혼잡을 방지하고 있다.

최석원 호수동장은 “민원 업무로 바쁜 와중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는 민원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더불어 철저한 방역을 통해 안전한 호수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수동통장협의회는 지난 4월3일 관내 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했다. 방역은 6개 조로 나누어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해 소독 후 소독완료 필증 스티커를 부착했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물을 배부하고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한 모임과 외출 자제하기 및 2m 안전거리 유지하기를 홍보했다.

문의 : 호수동행정복지센터(031-481-6533)

### 초지동

## 화정천 돌담길 산책로에 조명등 설치,야간 산책 무섭지 않아요

초지동행정복지센터(이하 초지동)는 화정천 돌담길 산책로에 조명등 설치 공사를 완료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하게 됐다고 4월21일 밝혔다.

초지동은 야간에 돌담길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길을 제공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받아 3월30일부터 4월17일까지 산책로 220m 구간에 조명등 22개, 투광등 44개를 설치했다.

화정천 돌담길은 조명시설이 없어 어두컴컴해 야간에 산책하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곳이며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던 곳이다. 이번에 조명등을 설치함으

로써 봄과 가을에 돌담길 주변 벚꽃과 단풍을 즐겨 찾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고 즐길 수 있게 됐다.

돌담길에 산책 나온 주민들은 조명이 켜져 있는 벚꽃 아래에서 사진을 찍으며 “그동안 등이 없어서 산책할 때 너무 어둡고 무서웠는데 조명등이 설치되어 안전하게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남은 구간에도 이른 시일 내에 조명등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재문 초지동장은 “화정천 돌담길 산책로가 지역주민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공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의 : 초지동행정복지센터(031-481-6822)



### 선부1·2동

## 아름다운 꽃길 조성하며 주민의 지친 마음 위로한다



선부1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월3일 청사 및 관내 주택단지 입구 화단에 화훼농가 돕기 봄꽃 1,000본을 식재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화훼

농가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을만들기 회원과 통장, 주민 등 30여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봄꽃 식재행사가 진행됐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마을주민들은 식재된 꽃을 보면서 코로나19로 움츠러든 마음에 봄 향기를 가득 담은 것 같이라며 좋아했다.

이광심 마을만들기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힘든 시기에 식재된 봄꽃을 보면서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편안한 일상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부2동행정복지센터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시가지 및 도로변에 봄꽃을 식재했다. 이번 꽃길 조성은 선부2동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팬지, 비올라 등 다양한 봄꽃 3,000본을 식재해 풍성한 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배순철 선부2동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形形色색의 화려한 봄꽃을 보며 잠시나마 활력을 갖고 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꽃을 통해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선부1동행정복지센터(031-481-6849)  
선부2동행정복지센터(031-481-6909)

물품 기부 또는 성금 모금에 관심이 있는 시민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 031-481-3190 | 저소득층 대상 | 안산시 복지정책과 031-481-3025 | 코로나19 관련·저소득층 대상 | 동 행정복지센터

## 연극 교육과 연습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공연 안산문화재단, 청소년 극단 '고등어'에서 꿈을 펼쳐요!



안산문화재단의 청소년 극단 '고등어'는 연 2회 창작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고등어 단원들은 매주 연극 교육과 연습을 통해 함께 공연을 만들어 나간다. 2017년에는 마임극 '토이스토리', 뮤지컬 '푸른별 보고서', 2018년 뮤지컬 '안녕?! 로맨스', 연극 '선감학원'까지 매년 새로운 공연으로 시민을 만난다. 2019년에는 연극 '고.등.어', 뮤지컬 '우리의 시간' 뿐 아니라, 안산문화재단 청소년극 페스티벌인 'B성년 페스티벌'에서 연극 '칼라폴걸즈'를 공연했다.

특히 안산에서의 공연 외에도 춘천마임축제, 일본 오키나와 국제야동청소년연극제, 일본 돗토리현 새의극장에서 공연하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고등어 단원들은 전문 강사들의 연극 교육을 통해 예술분야로

의 진로를 탐색하고 예술성을 함양하고 있다.

고등어 극단은 5월 중 2020년 회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회원 모집은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고 경기꿈의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관내 중학생 3학년부터 고등학생 2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올 7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될 예정이다.

연극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 머리카락을 삭발할 정도의 열정으로 2년 동안 활동해 온 성안고등학교 2학년 이재권 학생을 만나 극단 활동에 대해 들어 보았다.

### Q. 고등어 극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요?

안산에서 뮤지컬이나 무대에 관심이 있는 친구는 고등어 극단을 모두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등어는 무대에 공연을 활발히 올리기로 저명한 극단이기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2018년 극단에 들어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Q. '고등어 극단은 이런 곳이다' 소개한다면?

고등어 극단은 좋은 화분 같은 곳입니다. 뮤지컬이나 연기에 대한 관심이 씨앗이라면 고등어라는 화분에 자리를 잡고 실력과 열정이 잘 자라고 가꿔지는 기분이 듭니다. 극단 활동은 다양한 경험과 연습을 토대로 정말 좋은 배우가 될 첫걸음이라고 느꼈습니다.

### Q. 극단 활동하면서 변화되었거나 좋은 점은?

확실히 연기의 좋은 테크닉과 무대 경험을 비롯한 배경지식을 많이 알게 된 거 같습니다. 실제 무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알려주어 현장감도 느껴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만들기에 유대감이 좋아지고 더욱 열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Q. 연극에 관심있는 친구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연극에 관심이 많다면 다 아시겠지만 많은 경험과 풍부한 감성을 갖출수록 활동하는 재미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배우는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경험하고 배우로서 삶의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 모두 훌륭한 배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Q. 앞으로 활동 계획은?

입시 학원을 다니면서 실력을 더 키워 연극을 공부할 수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등어 활동을 병행하면서 입시 준비를 하는 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변화를 주고 체계적으로 노력해 배우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문의 : 안산문화재단(031-481-0527)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 코로나19 이기는 20대 청년 위한 아르바이트 프로젝트 안산희망재단·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힘내요 안산TAXI!'



코로나19를 이기는 20대 청년 지역공동체 프로젝트로 안산희망재단과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나 함께 추진한 '힘내요 안산TAXI!'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지역사회 분위기가 경직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동시에 유발되는 소외와 차별을 막고 지역공동체를 강조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프로젝트이다.

'힘내요 안산TAXI!' 프로젝트는 4월9일부터 5월7일까지 한 달 여간 진행되며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정차 대기 중인 택시의 내·외부 방역활동과 동시에 택시기사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생수와 세차타올 등을 제공한다.

안산지역의 민간공익재단이자 지정기부금단체인 안산

희망재단과 경기도로부터 선정되어 본격적인 지역 청년 커뮤니티를 위한 활동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청년공간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와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동시에 공동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나섰다라는 취지가 돋보인다.

이번 사업의 예산은 안산희망재단의 지역공동체기금 출연 및 모금 중인 코로나19 특별모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안산희망재단 관계자는 이 사업이 지역 청년들에게 소득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불안과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응원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가운데 소비 경제를 진작시키는데 함께 노력하고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데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접수 시작 이틀 만에 80여명의 청년이 신청했고 이 중 35%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소득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해 사업의 필요성을 입증했다.

4월9일 오후 12시부터 중앙역, 상록수역, 안산역 등 안



산지역 주요 택시대기 정차지점에서 동시에 시작됐으며 이날 중앙역 택시 승차장에서 안산희망재단과 경기내일스퀘어 상상대로,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선진교통문화협의회 안산시지부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젝트의 시작을 선포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청년은 "처음 택시 기사 분들한테 다가가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마워해주는 분들이 더 많아 보람이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 20대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문의 : 안산희망재단(031-411-1984)  
황정욱 명예기자 loosedom@hanmail.net

## 안산시의회 회기 숲과정 생중계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지난 6차례 회기 동안 생방송 중계 총 1만7천500여명 시청

안산시의회가 지난해 6월부터 상임위원회 생방송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가운데 시의회 안팎에서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마무리된 제260회 임시회는 16일 동안 진행됐음에도 회기 내내 회의를 참관하려는 방청객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가 가장 컸지만, 굳이 현장에 오지 않아도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것도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처럼 방청 대신에 의회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접근이 가능해져 새롭게 시청자가 유입되는 사례는 의회의 자체 통계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의회는 지난해 6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중 시범 방송을 실시한 데 이어 제256회 임시회부터 제260회 임시회까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대한 생방송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했다. 총 6차례의 회기에서 59일 동안 방송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누적 시청자수 1만7천511명, 각 회의별 평균 시청자 수도 149.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제258회 제2차 정례회의 경우 25일간 총 6

천655명의 시청자들이 회의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나 상임위 생방송 시스템을 가동한 이래 가장 많은 시청자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2020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굵직굵직한 안건 심의가 이뤄지면서 높은 관심이 다수의 시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임위 생중계 이후 지역 내에서 의회활동에 대한 집중도가 제고됨에 따라 안건 심의에 임하는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과거에 비해 질의와 응답 수준이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질의나 답변에 이전보다 신중을 기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다. 중계 카메라로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질의와 답변 준비를 조금이라도 더하게 된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다. 공직자들도 의원들이 꼼꼼히 준비하는 만큼 답변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더 더욱 깊은 수준의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회 동영상 뉴스 및 SNS용 카드뉴스 제작 등 이전에는 없던 다양한 방식과 시도로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하는 변화도 꾀하고 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 현장활동, 의회연구단체 간담회 등 의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활동을 동영상으로 담아 뉴스 형식으로 전하는 한편, 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카드뉴스로 만들어 공유하면서 시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가고 있다.

김동규 의장은 “지난해 상임위 생중계 시스템 도입에 대해 의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으나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의정활동에 도움과 자극이 된다는 평가가 더 우세하다”며 “앞으로도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생방송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소통의 언로(言路)를 마련해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을 높이는 데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 안산시의회 시화호 유역 지속가능발전 특위, 본격 활동 ‘돌입’

### 반달섬 현장활동 실시, 활동계획서 채택 및 시화호 유역 현장상황 파악



안산시의회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구성 이후 첫 일정을 소화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4월17일 의회 제3상임위원회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활동계획서를 채택한 데 이어 곧바로 시화호 유역의 반달섬으로 이동해 조사활동에 나섰다.

이번 일정은 지난 2월5일 위원 선임과 위원장·간사 선출을 위해 열린 1차 회의 이후의 첫 활동으로, 특위의 향후 활동 방향을 구체화하면서 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반달섬을 찾은 위원들은 동행한 안산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들로부터 시화호 유역과 송전철탑 설치 현황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특위의 활동 대상지인 시화호는 1987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시화방조제 공사로 탄생해 2000년 12월

해수호로 인정됐으며, 이 일대의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 및 시화조력발전소 건립, 송산그린시티 개발, 시화호 배길조성 사업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고 있다.

시화호의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송전탑의 경우는 호수 내 안산시 구간에만 39기가 설치돼 있고, 구봉도 인근의 6기까지 포함하면 점용면적이 45만71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두 시간 가량 머문 위원들은 시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시화호 관련 이해를 높이면서 송전설비 처리 문제를 비롯해 시화호 및 관련 시설의 명칭 유래, 생태 자원으로로서의 시화호의 가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현장활동에 앞서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지역특성 및 정체성이 반영된 시화호 명칭의 변경안 도출과 ▲시화호 유역에 설치된 송전철탑의 효율적 이설 방안 수립, ▲자연환경 보전을 기반으로 한 시화호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연구를 활동 목표로 밝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시 집행부에 전달할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박태순 특위 위원장은 “시화호 유역은 지역의 훌륭한 환경 자산이자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건강한 생태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면서 “이날 채택한 활동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특위 활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위원들과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산시의회, 코로나19 극복 동참

### 국외연수비 전액 삭감 결정

안산시의회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의회 세출 예산 조정의 일환으로 공무국외출장 여비 전액을 삭감한다. 시의회는 3월3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시에 삭감하기로 한 예산은 의원국외여비 및 국제화여비 전액으로,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면서 경제 위기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시가 의회에 요청한 세출 예산 10% 삭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회 예산의 구조조정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국외여비를 포함한 의회 예산 조정 내역을 조만간 확정해 시에 송부할 예정이며, 조정안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되게 된다.

김동규 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의회도 시 집행부와 합심해 정책 발굴과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의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수립하기도 했다.



<나비잠: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엄마, 아빠는 힘든 시기를 노력과 끈기로 현명하게 보냈다.

아이이름: 유성운(남) 출생년월: 2019년 4월

우리 성운이를 만나기까지 시간들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마부위침(磨斧爲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성공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견디며 작년 4월 26일에 건강하게 태어나준 성운이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빠는 성운이와 너무나 귀한 시간을 보내며 어려울수록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훗날 성운이가 크면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을 대한민국이 노력과 끈기로 잘 이겨내어 또 한번의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고 이처럼 성운이의 인생도 마부위침(磨斧爲針)을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출산, 육아 혜택이 좋은 안산에서 둘째를 낳으려고 합니다. 이런 희망찬 꿈으로

안산시와 함께하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 육아를 하고 계신 부모님들 훗날 자식들에게 국난의 위기를 현명하게 지내왔다고 말해줄 수 있도록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 이유림(단원구 신길동)



전문가  
기고

작은 문제, 큰 문제

며칠 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사무실에서 서면작성을 하고 있을 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보통 저녁에 걸려오는 사무실 전화는 잘 받지 않는데 그 날은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전화한 사람은 대뜸 지금 상담이 가능하냐고 하였는데, 무척 급한 목소리라 말씀해보시라고 하였다. 피상담자는 상가 건물 4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했는데, 당구장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흘러 3층 상가의 벽을 장식해 둔 목재가 젖어 뒤틀리고 변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나는 '그럼 3층 상가의 침수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겠네요'라고 답해주었다. 피상담자는 '저도 그럴 생각인데, 피해자가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면서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냐고 하였다. 피상담자에게 양측이 생각하는 피해보상의 정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피상담자는 10만 원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피해자는 50만원을 요구한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길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당사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두 사람의 다툼을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면 양쪽 다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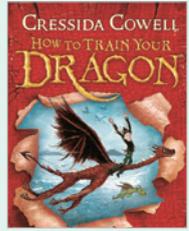
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이니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해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에 어디에서 전화했냐고 물어보니 부산이란다.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고 하니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급히 전화했다.

항상 수많은 법률적 문제에 파묻혀 살다보면 무의식중에 일의 크고 작음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당사자들에게는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큰 법률적 문제일 것이다. 자신이 평생 동안 일군 재산이 다투어지는 소송이 있을 수 있고, 아래윗집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사람을 죽인 사건에서부터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훔친 사건까지 형사적 문제도 다양하다. 일의 크고 작음은 내 기준이나 시각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면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크고 중요한 것이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아본다.

· 김성천 변호사

아동



드래곤 길들이기 1

저자 크레시다 코웰 / 출판사 예림당

헤어리 홀리건 부족 족장의 외동아들 히컵은 별다른 특징 없이 작고 깡마른 소년으로, '쓸모없는 히컵'이라고 불린다. 히컵을 포함한 홀리건 부족 소년들은 성년식 시험을 통해 정식 부족원이 되어야 하며, 실패하면 부족에서 영원히 추방당한다. 과제는 바로 사나운 드래곤을 잡아서 길들이는 것!

청소년



The Art of 주토피아

저자 리치 무어 외 / 출판사 참돌

지금보다 어둡고 복잡했던 '주토피아'의 초기 스토리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주디의 경찰복 재질이 거구의 동료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주토피아의 제작 의도와 초기 기획, 기초 스케치와 스토리보드, 스크립트들이 담겨 있으며 애니메이션에 등장하지 않은 주토피아의 나머지 구역을 포함한 각종 설정들과 캐릭터들의 변경 과정 및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날 수 있다.

성인



기생충 각본집 & 스토리북

저자 봉준호 / 출판사 플레인

'기생충' 각본집과 스토리보드북은 봉준호 감독이 직접 쓴 각본, 직접 그린 스토리보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독자들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봉준호 감독의 머릿속에서 구성되었고, 또 스케치 되었는지를 탐구해가는 특별한 과정에 동행하게 될 것이다.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독자 투고

## 꽃의 위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돌봄 근무가 길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로 겨울방학 끝자락에 시작된 긴급돌봄, 하루에 열체크 3번씩하면서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도록 하며 아이들 급식지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등교개학이 2주씩 연장되면서 조금만 더 참자는 심정으로 오늘만, 그리고 하루만 버티자는 심정으로 견뎌내고 있었는데 벌써 4월 중순을 지나고 있다.

오전부터 아이들과 함께 하고 퇴근할 쯤 되면 허리가 너무 아파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호수공원을 돌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쳐 갈 정도로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든 걸음을 내딛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허리가 풀리는 것을 경험한다. 병원에서의 물리치료보다 이렇게 공원을 걸으며 조금씩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다행이었고 감사로 다가왔다.

벚꽃이 몽우리를 피우다가 꽃망울을 터뜨리더니 오늘은 꽃눈을 날리며 산책길을 반겨줬다. 벚꽃이 피고 지는 동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다가 조금 잠잠해

지기도 했고 선거일도 지나갔다. 그렇게 풍성했던 연핑크 벚꽃길이 이제는 허전해져서 그런지 마음까지도 조금은 행해진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안타깝다. 그래도 공원에서는 부모들과 함께 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연 날리는 모습, 자전거도 타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바쁘게만 지나가던 우리의 일상이 여유를 되찾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벚꽃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라일락이 꽃향기를 퍼뜨리고 철쭉이 꽃망울을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다. 조팝나무도 벚꽃에 지지 않으려는 듯 화려함과 풍성함으로 채우고 있다. 힘든 일상이고 지친 마음이지만 그래도 꽃이 “조금만 더 참고 힘내라”고 위로해주는 것 같다. 코로나19가 지나가는 계절이 그나마 봄이어서 다행이다. 이름 모를 붉은 꽃도, 수줍은 듯 복숭아꽃도 내 마음을 쓰담쓰담,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것 같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자연이 주는 위로를 받으며 기운을 내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참말 다행이다. 꽃들아 고맙다.

· 이육자(단원구 고잔동)



독자 투고

## 소중한 한 표



지난 3월10일경, 아는 엄마들 모임카톡방에 문자 하나가 올라왔다. ‘개표사무원 하고 싶으신 분, 신청하세요~’ 아들도 군대에 가고, 시간도 많고, 단지 새로운 경험이겠다 싶어서 얼른 신청문자를 넣었다.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한 순간이 나를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줄 어떻게 알았으리! 속속 들어오는 차량과 예상외의 인파부터가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6시 투표마감시간 전, 기본적인 교육과 안전 교육 후 국민의례순서가 있었다. 의례적인 절차로만 여기는 도중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짧은 순간, 감동을 느끼기도 했다. 처음 해 본 개표업무였지만 앞에서 진행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분들의 안내와 각 분야별 업무분담, 종이간지와 투표용지를 묶는데 사용하는 고무밴드의 색깔별 분류 등, 작은 것에서부터 세밀하게 준비되어 착오없이 진행됐다.



이번 선거는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길어서 일일이 수(手)개표를 해야 했다, 분류와 무효표 선별 등 한 조로 배정된 팀원들과 손발이 척척 맞는 기분은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성취감이었다. 처음 만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책임감과 책

임감을 넘어 기본적인식이 있는 시민으로서의 훌륭한 자질이 새벽 4시까지 같이 힘을 내어준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다. 모든 테이블에서 업무가 끝나야지만 귀가할 수 있는 특성상 30여분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지만 불평하는 목소리는 커녕 오히려 간간히 웃음소리 대화까지 들렸다. 종이조각까지 일일이 주변정리를 하면서 기다리는 개표사무원들을 보며 “단순한 아르바이트 목적이 아닌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이구나” 또 한번 느꼈다. 거창한 단어처럼 느껴지는 ‘민주주의’. 이렇게 소시민들 하나하나가 참여할 때 진정성이 발휘되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두터운 무게임을 깨닫게 되는 새벽녘이었다. 개표할 때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투표용지에 장난으로 기표를 한 것이다. 누가봐도 의도적으로 장난으로 기표를 해 놓은 용지들이 있다. 기표도장으로 빨간색 도장 인주꽃을 그려놓은 표, 기표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도장으로 꺾꺾꺾 눌러 놓은 표, 아예 기표를 하지 않은 공란들, 모두 다 아까운 한 표이다.

선거 캠페인 광고를 보면 ‘아까운 한 표, 소중한 한 표’ 이것이 단지 광고하는 카피문구로 흘러들었는데 직접 현장에서 개표를 해 보니 정말 아깝다는 마음이 절실했다. 투표는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안산시민 모두 소중한 한 표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

· 광연옥(단원구 와동)

안산시 시정소식지는 무료 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독·주소변경 신청

메일 ansannews@korea.kr  
전화 031-481-2042



안산시 시정소식지에서는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 개인의 연락처, 주소 및 글과 관련된 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 시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연이 채택 된 경우 소정의 원고료(5만원 이상)는 다른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독자투고 및 전문가 칼럼

주제 생활담(자유주제) 특색있는 안산시 이야기 법률상식 / 미담(칭찬) 사례

분량 · A4용지 2/3 이상 · 관련 사진

나비잡

주제 생후~24개월 전후 아이를 둔 가정의 출산·육아 이야기

분량 · A4용지 절반 · 아기 사진 1장

안산시에 바란다

주제 안산시가 고쳤으면 하는 불편사항 또는 도입했으면 하는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분량 · A4용지 절반 · 관련 사진



**한빛방송 (4월 2일)**  
안산시민 1인당 1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받는다



**KBS (4월 2일)**  
차량이동형으로  
장난감 대여부터 시장배송까지



**연합뉴스 TV (4월 3일)**  
코로나19로 도서관 문닫자  
책 배달에 무인 대출까지



**SBS (4월 9일)**  
야외 축구장서  
취업 면접시험 구직자 반색

### 직장부모 커뮤니티 지원사업 공모

- ◇ 신청기간 : 2020. 4. 22. ~ 5. 22.
- ◇ 지원대상 : 5인 이상 직장부모 커뮤니티 운영 또는 희망하는 모임(센터 주관교육 참석 필수)
- ◇ 지원분야 : 부모교육, 문화프로그램, 관계회복 프로그램
- ◇ 지원내용 : 모임 별 100만원 이내 지원
- ◇ 신청방법 : 전자우편 접수(asww38@naver.com)
- ◇ 문의 :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495-5844/6844)

### 긴급예술지원 "Have a Good dream"

- ◇ 신청기간 : 2020. 5. 6. ~ 5. 8.
- ◇ 지원대상 : 안산에서 활동하는 개인예술가 및 안산시민
- ◇ 지원분야 : 일상속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
- ◇ 지원내용 : 예술가 - 1차 30만원 / 2차 150만원  
안산시민 - 10만원
- ◇ 신청문의 :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ansanart.com) 또는 전화(031-481-0527)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안내

- ◇ 신청기간 : 상시
-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경기도민
- ◇ 신청방법 : 경찰서 교통민원실 및 운전면허시험장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대리신청 불가)
- ◇ 지원내용 : 1회 한정, 지역화폐(10만원 상당) 지급  
예산부족 시 예산확보 후 순차적 지급
- ◇ 문의 : 안산상록경찰서(031-8040-2352)  
안산단원경찰서(031-8040-0352)

###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 신청기간 : 2020. 4. 14. ~ 5. 4.
- ◇ 열람대상 : 9만7천994필지(안산시 전체 개별필지)
- ◇ 열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참고  
(www.realtyprice.kr)
- ◇ 의견제출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 제출방법 : 안산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접수
- ◇ 문의 : 안산시 토지정보과(031-481-2628)

### 상세주소 부여 신청하세요

-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
- ◇ 신청대상 :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상가건물
  - ◇ 신청자격 :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산시청 방문
  - ◇ 문의 : 안산시 토지정보과(031-481-2639)

###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 ◇ 신고기간 : 2020. 3. 2. ~ 6. 30.
  - ◇ 신고대상 : 민특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임대사업자
  - ◇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 시점까지 신고·변경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 신고방법 : 렌트홈(renthome.go.kr)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
  - ◇ 문의 : 안산시 주택과(031-481-2374)
-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 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에 한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

**5월은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 5월의 독자 참여 퀴즈

〈안산특독〉에 담긴 이야기를 꼼꼼히 읽으신 후 정답을 찾아보세요.

**Q** 안산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과 나이, 국적에 상관없이 안산시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 ① 경제활성화지원금 ② 코로나19안정지원금 ③ 생활안정지원금

**Q** 단원구 와동에 위치한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호, 충신 김여몰과 열녀 네 분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정문(旌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열녀문 ② 사세충렬문 ③ 오정각



### 퀴즈 응모 방법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디지털 엽서로 연결됩니다.  
정답을 찾아 제출해주세요.  
응모자 중 20명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무작위 추첨 후 개별 문자 발송 (3개월 이내 중복 당첨 불가)



응모기간 : 5월 26일까지 4월 호 정답 : ②, ③

## 안산시 소식을 전하는 새로운 방법 시정소식지 안산톡톡 '보이스아이' 도입

- 대상** 시각장애인, 어르신·저시력자, 다문화가정
- 바코드 위치** 안산톡톡 오른쪽 상단
- 이용방법**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검색 후 다운로드
- 시행일** 2020년 5월
- 문의** 안산시 공보관(481-2042)

- ☑ 시각장애인을 위해 읽어드립니다. ① 보이스아이 스캔 ▶ ② 음성출력
- ☑ 어르신·저시력자를 위해 글자 크기를 키웁니다. ① 보이스아이 스캔 후 '설정' 누르기 ▶ ② 문자크기 변환(+, -버튼)
- ☑ 다문화가정·외국인을 위해 번역해드립니다. ① 보이스아이 스캔 후 '설정' 누르기 ▶ ② 번역(58개국 언어 번역)

